

2004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저는 남자친구를 사귄 적도 있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 적도 없는데요. 그 애를 하루
못 봐도 불안해요. 그런데 제 이런 감정이 그저 그 친구를 많이 좋아해서 헛갈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
가혼 셋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동성애자인 것입니까? 결혼한 여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저의 성향
을 알아 버렸습니다. 동생이 제가 쓴 일기와 옛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다 읽어보고
부모님께 고자질해버린 모양이에요. 저와 애인의 교제 사실을 저의 부모님이 알게 되
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애인을 심하게 때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헤어지겠다는
것까지 썼습니다. 아웃팅 협박을 하면서 제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보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너희 집에 너가 레즈비언인 사실을 내가 알리면 어떻
게 되는 줄 아느냐?”면서 빌려간 돈과 저의 신용카드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선배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 나와 있는 너희 집 전화로 네
동성애자인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강간했습니다.
현재 1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그 남자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Tel. 02-703-3542 Fax. 02-703-3543
e-mail : kiri9411@chollian.net URL: www.kirikiri.org

발행일 2004년 7월 30일

편집위원 나루, 린, 박통, 반디, 이산, 토리, 핑

편집디자인 철이

펴낸곳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Tel (02) 703-3542 **Fax** (02) 703-3543

E-mail kiri9411@chollian.net

URL www.kirikiri.org

Copyright 상업적 용도나 사회적 억압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자료집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이 자료집의 모든 내용을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04 들어가기

05 기초정보

09 상담스킬

13 상담 및 내담 사례

- 14 청소년 상담
- 23 성정체성
- 39 동성 교제
- 49 성관계
- 57 커밍아웃 및 대인관계
- 63 폭력범죄
- 71 기혼여성
- 81 동성애 정보
- 87 기타
- 93 전화상담

101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101 국내기관
- 109 국외기관

117 참고자료

- 117 출판자료
- 128 영상자료

140 끼리끼리 소개

첫 번째 상담사례집 발간에 앞서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나침반이 되길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 운동모임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는 1994년 창립한 이후 인권운동단체로서 10년 여 동안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여성을 위한 상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끼리끼리>에서는 전화상담을 비롯하여 홈페이지(kirikiri.org)를 통한 게시판 상담, e-mail 상담 그리고 면접상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성소수자 여성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대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하는 공인이 늘어나고 성소수자에 관한 담론이 활발해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끼리끼리>가 상담해 온 상담 사례의 심각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진 면이 있을 뿐 성소수자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2류 시민에 불과하며, ‘변태’,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를 둘러싼 온갖 허위 정보와 그릇된 편견은 우리를 여전히 에이즈의 주범으로 몰고 있으며, 강간·협박·금품탈취·폭력 등의 혐오 범죄의 표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는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폭력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물리적·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거나 올바른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가시화된/비가시화된 인권 유린이 일상 생활에서는 물론, 청소년 및 여성 상담기관 현장에서조차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 찾게 되는 신경정신과에서는 정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기 일쑤이고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허위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를 접하게 되더라도 성소수자 관련 상담의 경험 부족이나 지식의 부족, 그리고 편견 등으로 온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끼리끼리>에서는 첫 번째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수많은 성소수자 여성들에게는 물론 여성단체 활동가, 상담기관 상담가 등에게 성소수자 관련 상담에 임할 때 그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 작은 책자가 상담가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인식과 상담 기초 지식을 갖게 하고 관련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 생각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정체성으로 자신을 혐오하고 학대하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도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과 환경에서도 상담사례집 제작을 위해 애쓰신 나루님, 린님, 박통님, 반디님, 이산님, 토리님, 핑님, 철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 8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기초 정보

■ 동성애 / 동성연애

동성애는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동성연애에는 동성과의 어떤 성적인 경험 내지는 성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부정적인 점에서 시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 지향성을 무시한 채 동성과의 성 행위 만을 동성애라고 부르는 것은 '동성애'와 '동성연애'의 개념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행위doing가 아니라 존재being이며 성행위 등은 존재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동성연애로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동성애자 / 동성연애자

동성애자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정서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자신의 지향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동성과 섹스를 했다거나 동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것만으로 동성애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타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단정 짓거나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동성연애와 마찬가지로 동성연애자 역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 레즈비언(lesbian)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합니다.

어원은 그리스의 에게해(海)의 레스보스(Lesbos) 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레즈비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류 서정시인 사포(Sappho)가 레스보스 섬을 본거지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레즈비언은 레스보스 섬의 사포와 같은 사람들이란 뜻에서 유래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 게이(gay)

남녀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이지만,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할 때 쓰입니다. 게이라는 단어는 '행복하다, 즐거운, 기쁜'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긍정하고 주위의 동성애 혐오적인 시선에 대항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바이섹슈얼(bi-sexual)

양성애자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정서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의 성 정체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양성애자들이 양성 중 어느 성에 더 이끌리느냐의 문제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 트랜스젠더(transgender)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여성 혹은 남성의 몸으로 태어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이성(異性)이라 인식하고 행동해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의상, 머리 스타일, 행동 등 개별적인 몇몇 욕구나 현상으로 트랜스

젠더임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트랜스 젠더들은 대부분 매우 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을 자신의 성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 온 경험을 가집니다.

트랜스 젠더와 성전환이라는 표현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트랜스 젠더는 성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의 성을 올바르게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나의 생물학적인 성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인식하는 사회적인 성을 지향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인 것입니다.

■ 이반

이반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종로의 게이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성애자를 의미하는 일반(一般)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이반(二般)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동성애자의 자조적, 냉소적 어조가 담겨있었으나, 후에 이성애자와 다르다는 뜻인 이반(二)을 다룰 이(二)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반은 이성애자를 제외하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의 모든 성 소수자를 포함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퀴어 (queer)

퀴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묘한, 이상한, 괴상한'으로,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단어는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동성애자들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퀴어 역시 이반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뿐만 아니라 이성애 중심주의에서 소외된 모든 성적 소수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발전하였습니다.

상징물

레인보우(rainbow)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레인보우는 동성애자의 상징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각 색깔들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빨강은 삶(life), 주황은 치유(healing), 노랑은 태양(sun), 초록은 자연(nature), 파랑은 예술(art), 보라는 영혼(spirit)입니다.

분홍색 역삼각형 (pink inverted triangle)

분홍색 역삼각형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이 수용소에 수감된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분홍색 역삼각형을, 여성 동성애자들에게 검은색 역삼각형을 달게 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분홍색 역삼각형은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 있어서, 나치에 의한 동성애자들의 억압에 의미를 두어 저항과 연대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동성애자들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커밍아웃(coming out)

커밍아웃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 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 성 소수자로 정체화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드러내는 과정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성 소수자 자기 자신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에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커밍아웃은 성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웃팅(outing)

아웃팅은 성 소수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개인의 성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 소수자 개인의 자율성이 배제되는 아웃팅은 성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커밍아웃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악의에 의한 아웃팅은 물론이고, 별 생각이나 의도 없이 한 아웃팅이라 할 지라도 성 소수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삶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아웃팅은 범죄라는 인식을 키우는 것과 아웃팅을 예방,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호모(homo)

호모는 동성애를 뜻하는 'homosexual'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동성애자를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지만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모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 호모포비아(homophobia)

호모포비아는 동성애 혐오증을 뜻합니다. 이는 정확한 정보나 지식 없이 동성애나 동성애자를 막연한 두려움, 무조건적인 거부감, 혐오 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모포비아는 이성애 중심주의적 사회의 견고한 틀 속에서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게도 내면화 됩니다. 따라서 동성애자 중에도 자신의 호모포비아로 괴로워 하는 경우가 있으며 호모포비아로 인하여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담 스킬

여성 성소수자 상담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1. 무엇보다도 상담자는 레즈비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문화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 레즈비언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심리학적 훈련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 상담자는 레즈비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와 과거의 레즈비언에 대한 문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조사문헌일 수도 있고, 임상자료일 수도 있고,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문헌일 수도 있다. 이것을 통해 레즈비언에 대한 요구되는 배경과 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상담자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될 수 있는 한 정기적으로 참여하라. 그를 통해 레즈비언의 정보망, 모이는 장소, 지지그룹과 같이 레즈비언을 위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4. 상담자는 레즈비언의 특별한 스트레스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동성애자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에 따르는 공포감, 드러내는 것의 장점과 단점, 차별의 영향, 가시성이나 사회적 지지의 부족, 성역할 위반의 장단점, 내재화된 호모포비아의 영향 등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5. 상담자는 정체성 형성이론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성 형성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성적 지향은 이성애나 동성애나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유동적인 현상이다. 또 정체성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어떤 단계를 경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발전경로를 탐색함으로써 각 시기마다의 주요한 특징을 이해하고 상담자의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1. 우리와 통화하기 위해 며칠, 몇 년을 애쓰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2.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전화한 것입니다.
3. 존중받고 싶고, 스스로 결정할 힘을 갖고 싶고,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내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4. 남성중심, 폭력옹호, 동성애 공포증이 가득한 사회에서 살아 온 사람입니다.
5. 공감과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6. 자기의사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6.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호모포비아, 내재화된 호모포비아의 양식들을 탐색하라.

7. 상담자는 여성이면서 동성애자인 레즈비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여성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성으로서의 사회화와 그것이 동성애에서 발현될 때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8. 상담자는 레즈비언 내담자의 삶에서, 신념에서, 감정에서, 관계에서 작용하는 호모포비아의 영향을 내담자가 파헤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이성애적 편견, 혼란, 오해 등에서 자신이 자유로

울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호모포비아를 탐색하는 일에 긍정적, 개방적 자세를 취하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9.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체성 문제에 관해 자신과 사회가 다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만족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0. 상담자는 레즈비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법적 제도 및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하며 또한 이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내담자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

1. 정말 힘드시겠네요?
2. 네, 충분히 공감해 갑니다.
3.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4. 상담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5.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견디어 오시니 참 훌륭하십니다.
6. 지금까지 버텨온 힘으로 뭐든지 잘 하실 수 있어요.
7. 정말 아까운 여자예요.
8. 당신 같은 아까운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안타깝군요.
9. 전화 참 잘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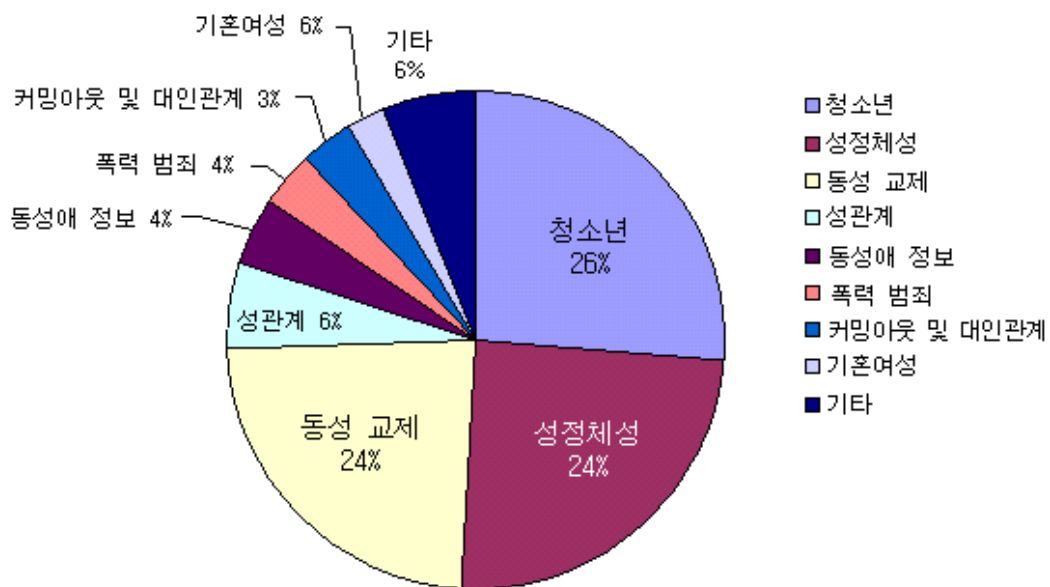
내담자를 좌절시키는 태도

1. 내담자를 비난하지 마세요.
2. 혼내듯이 말하지 마세요.
3. 내담자를 귀찮아하지 마세요.
4. 짜증내서도 안돼요.
5. 흥분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6. 내담자의 말을 끊지 마세요.
7. 문제의 원인을 내담자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8.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지나친 공감은 피하세요.
9. 내담자와의 지나친 동일시는 삼가하세요
10. 답답해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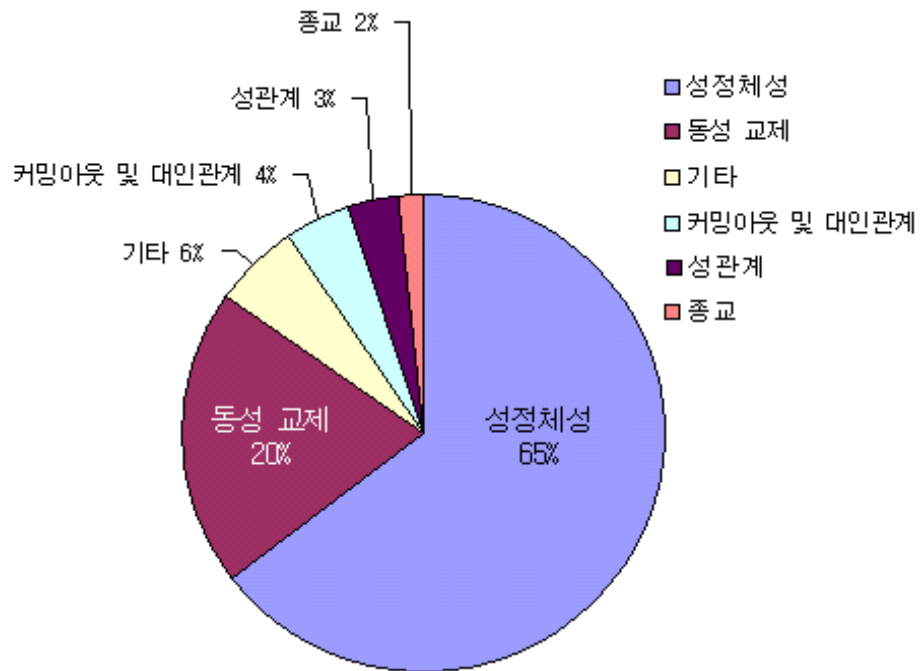
상담 및 내담 사례

■ 전체 상담사례별 통계

다음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상담실 <징검다리>에 접수된 내담사례에 관한 통계 결과이다.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 까지 총 447건의 내담 사례가 접수 되었다. 접수된 내담 사례를 분석하면 청소년 관련 내담이 26%, 성적체성 관련 내담이 24%, 동성 교제 관련 내담 사례는 24%를 차지했다. 그 외 성관계 관련 내담 6%, 정보와 폭력·범죄 관련 내담이 각각 4%, 커밍아웃을 비롯한 대인 관계 문제에 관한 내담이 3%, 기혼 여성 내담이 3%, 기타 내담이 6%를 차지했다.



□ 청소년 상담 통계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접수된 총 447건의 내담 사례 중 청소년 관련 내담은 26%(11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상담을 청한 내담 내용으로는 '나는 동성애자인가?'등 과 같은 성정체성 관련내담이 전체 내담 사례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정체성 내담 다음으로는 동성 교제 과정상에 드러나는 어려움에 관한 내담이 20%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커밍아웃 및 대인관계에 관한 내담 4%, 성관계 내담 3%, 종교 갈등 관련 내담 2% 등으로 나타났다.

제가 이반이면 어쨌죠?

전 여자구요. 언젠가부터 같은 반인 그 애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갈수록 그 친구에게 호기심이 가고 그 친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알고 싶고. 제가 동성애자가 아닌지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을 좋아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 야한 꿈만 꾸게 되고 학교에서 그 친구를 보면 너무 미안한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근데 전 그 친구가 너무 좋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겁이나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상담실에 들어서 고민을 나누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동성애자는 동성의 누군가에게 감정적·심리적·사회적·성적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동성애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 있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지 않는다면(혹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누구도 동성애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만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님이 좋아하는 친구에 대한 감정이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지속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동성의 친구에게 이와 유사한 감정을 가지게 될 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성 친구에게만 호감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성의 친구에게든, 이성의 친구에게든 호감을 갖게 되면 그 친구와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동성애자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자기 스스로가 이반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긍정하게 되는 단계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두 번의 경험으로, 한 두 해의 고민으로 결판나듯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의 성이 무엇이든 야한 꿈의 주인공이 그 사람인 것이 내심 미안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동의 없이 행하는 스킨십은 큰 문제이지만, 야한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상대가 '동성'인 이유로 더욱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 건 아닌지요?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고 살아가는 일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동성애자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자기 스스로가 이반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긍정하게 되는 단계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두 번의 경험으로, 한 두 해의 고민으로 결판나듯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나의 감정을 살펴보고

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내 감정의 중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신중하게 찾아가는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모두 님께는 최선이고, 소중한 선택이며, 님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친구와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그 친구가 그토록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고자 한다면 살짝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친구가 불편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친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전달해 보는 거죠. 또 다른 의견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들려주세요.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고백하고 싶기도 하고, 고백하고 멀어질까 두렵기도 해요.

저는 다소 남성스러운 외모로 초 중학교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어서 늘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좀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 어떤 친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제 마음을 그 친구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표현했다가 그 친구가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기도 한데, 어쩌면 좋을까요?

좋아하는 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고 싶지만 고백 이후 친구의 반응이 어떨지 몰라 고민하시는군요. 주변 친구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이고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커밍아웃하는 과정에서 늘 심각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나를 벌레 보듯이 하면 어쩌나, 이 친구가 나를 떠나면 어쩌나, 친구들이 나를 더 이상 안 만나주면 어쩌나, 친구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니면 어쩌나....등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님도 많은 이들이 그랬듯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계시는 듯 합니다. 실제로 고백을 하고,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들에게 물어보면 그 결과는 모두 너무너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백 이후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기도 했고, 우려했던 대로 상대방이 너무 놀라고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반응해서 그나마 유지해 오던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안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폭언을 퍼부으

면서 ‘정신 차려라’고 말하고 떠나버리는 친구에서부터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위로해 주고, 힘을 주는 친구들까지 그 반응도 각양각색입니다.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은 커밍아웃을 할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나름의 준비/대책을 마련합니다. 헤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다시 못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고백 자체가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심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감당해낼 수 있다는 용기,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나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는 강한 의지 등을 가지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충분히 이후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 결과의 다양성을 점쳐보고, 결과에 따른 장단점을 생각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모든 것에 앞서 님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은 동성애자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것입니다.

.....
실제로 고백을 하고,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들에게 물어보면 그 결과는 모두 너무너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백 이후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기도 했고, 우려했던 대로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안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성애자인데, 여자 친구가 너무 좋습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제가 여기에 왜 들어온 것인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고 싶어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이반이 아닙니다.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빠들을 좋아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알고 지내 온 학원 친구에게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친구는 물론 여자입니다. 저는 오빠들을 좋아했던 경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감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게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조금만 친절하게 잘해주어도 저는 행복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저는 이반이 아닙니다.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동성애자인 걸까요?

지금까지 이성을 좋아했던 경험을 했었는데, 최근에 동성 친구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되어 많은 걱정을 하시는군요. 내가 동성애자인가, 이성애자인가 하는 문제는 하루 이틀에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감정과 경험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어렵게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성애자로 자신을 정체화한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이성 친구와의 교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성 친구에게 사랑을 느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성애자인 줄 알고 살아왔고 이성애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 십 년이 지나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 같다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오랜 세월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해오며 살던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통하는 이성 친구를 만나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듯 내가 과거에 이성에게 호감을

동성애자로 자신을 정체화한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이성 친구와의 교체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성 친구에게 사랑을 느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성애자인 줄 알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 십 년이 지나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 같다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의 나를 완전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감정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굳이 ‘○○애자’ 라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지금 친구에게 느끼는 감정을 천천히 살펴보는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기

대하는 것이 있는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기대를 그 친구에게 전달하는 게 둘의 관계를 볼 때 유익한 것인지, 그러한 기대를 전달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친구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배려해야 할지 등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성정체성에 관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차분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 또 다시 들려주시고요. 방문, 고맙습니다.

이반인 친구와 성관계 경험이 있으면, 이반인 거죠?

다른 반 친구이기는 하지만 한 친구를 매우 사랑했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구요. 우리는 서로 성관계도 할 만큼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단 한번도 이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첫 사랑은 남자였던 걸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애자인데, 아마 그 친구만을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고민은 그렇게 동성인 친구랑 성관계를 했으면 당연히 이반이 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친구는 전학을 가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으니 마음도 멀어진다고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락도 거의 안하는 편이구요. 저도 그 전처럼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앞으로는 이성친구를 사귄 겁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하기도 했으니, 이미 저는 이반이 된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예전에 만나던 동성 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 때문에 곧 ‘동성애자가 된 것’ 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성 친구와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자라는 것은 동성의 사람에게 감정적·심리적·사회적·성적 호감을 갖는 사람 중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정체

화한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성애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도 이성 친구와 성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성 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이성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정서적인, 정서적인 유대감 같은 것들 즉,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감정 상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 등이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동성 친구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어린데, 이반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중 3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레즈비언이었는데요. 지금도 어느 여학생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여성스러운 편인데요, 저는 늘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의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물론 교제를 한 경험은 없지만, 늘 이렇게 여자아이들을 좋아했죠. 하지만 전 제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고, 이렇게 어린 제가 스스로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죠?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는 시기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생각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주변의 많은 동성애자들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전부터 동성애를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어린 나이에든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곤 했던 경험은 있을 수 있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이고요. 저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동성 친구를 사랑했었던 걸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아니, 그 보다

더 어린 나이의 사람들도 좋아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우정과 사랑의 감정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정만 느껴야 하고, 사랑은 어른들의 전유물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변에 매우 긍정적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사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찾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어린이들은 우정만 느껴야 하고, 사랑은 어른들의 전유물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정체성 혼란은 정말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성장 과정 중에 한번 쯤 겪는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우연히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주제가 이상하게도 동성애 문제였는데요, 아내가 동성애자이고, 커밍아웃을 해서 이혼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동성애는 일시적으로 느끼는 현상이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이반들이 더 살기 힘들어 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다루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언짢으셨군요.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 주려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에서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과 정보들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여전히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의견과 시각을 전달하는 매체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데, 여전히 몇몇 방송에서는 동성애자를 비정상적인 사람들 취급을 하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방송 관계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에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동성애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974년에 그간 정신질환으로 취급해오던 동성애는 공식적으로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무려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로 미국의 정신질환 분류표에 의거하여 공부하고, 치료하는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유독 동성애에 관해서 만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또 최근 호주에서는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의 증상을 동성애혐오증이라고 해서 이를 정신질환 분류표에 추가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동성애를 비정상적이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는 우리나라 전문의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는 반드시 성인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양 생각하지만, 님도 알다시피 우리 주변의 많은 동성애자들은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청소년기에 이미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긍정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나쁘게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보실 때마다 매우 불쾌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니 많이 실망하지는 마세요.

몇 번의 동성교제 경험이 있지만. 나는 내가 레즈비언임을 인정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대학에 진학 할 학생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죠. 하지만 저는 벌써 세 번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여자하고 말입니다. 늘 여자 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아직은 단 한번도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왜 이렇게 여자만 좋아하게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후에 엄마,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때는 또 어떻게, 뭐라고 설명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이 없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걱정만 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문제가 생겨 자주 다투게 되네요. 어떻게 하면 제 스스로가 레즈비언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될까요? 또, 제가 스스로 레즈비언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 날 일들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담실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성 친구와 교제를 해오시면서 자신이 레즈비언이 아닐까하는 생각으로 많이 힘이 드시는군요. 그리고 레즈비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닥쳐 올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두려워하시고요. 실제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고 살아가는 일이란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제하고 있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숨겨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고,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매순간 바짝 긴장을 하며 살아야 하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동성애자로 정체화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만큼 동성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동성 친구에게 호감을 갖는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히고, 그렇게 부딪히다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어 질테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동성애자들은 나름대로 밝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님에게 같은 고민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시작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도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욱 커지는 것이랍니다. 아주 조금만 용기를 내어

같은 고민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시작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욱 커지는 것이랍니다.

밖으로 나오면 살면서 부딪힐 많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 안에서 평안함과 삶의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몇 개월 안에 자신이 레즈비언일 수 있음을 긍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생 을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부정하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님의 잘못 이 아닙니다. 레즈비언이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인정할 수 없도록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심각하게 퍼뜨려 왔습니다. 동성애자인 사람들 역시 자신의 성정체성을 혐오하도록 교육시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님이 이렇게 상담실에 글을 남기시고 부족하지만 제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용기를 내어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 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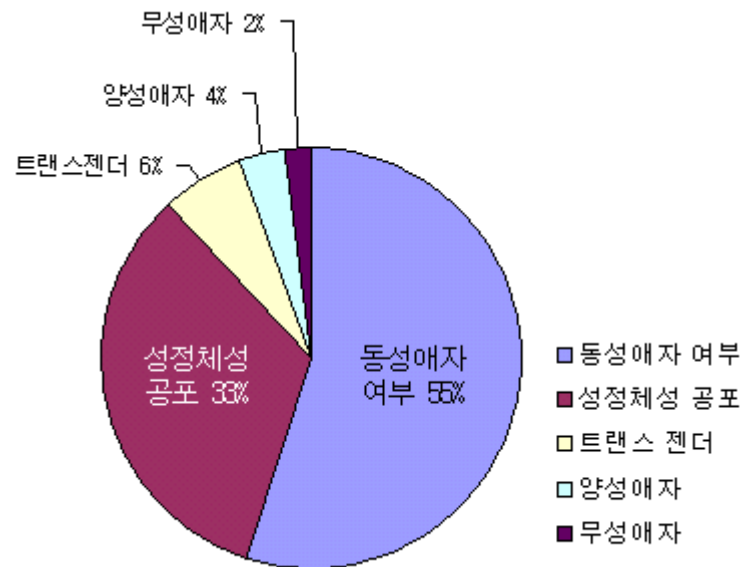
저는 HOT 팬인데, 그럼 저도 이반인가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과 HOT 팬클럽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반인 건가요? 주변 친구들이 HOT 팬들은 칼머리에 차림새가 비슷하다고 하면서 절더러 이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정말 이반인지 가르쳐 주세요.

가수 HOT 팬이군요. 팬클럽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팬클럽 회원들의 외모가 비슷비슷한데, 님도 머리 스타일이나 차림새가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우선,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팬클럽 활동을 하면서 동성친구에게 강한 호감이나 교제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껴 본 경험이 있는지요? 제가 읽기에 님은 그런 경험은 없으신 듯한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해도 모두 이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신을 이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외모나 나이, 학벌 등과 상관없이 다양 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모처럼 눈에 보이는 특징만으로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는 동성인 사람에게 감정적 · 심리적 · 사회적 · 성적 호감을 갖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라면 이러저러한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나쁜 것이고, 동성애자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편견일 뿐입니다. 그러니 팬클럽 활동을 하시면서 하게 된 머리 스타일과 차림새로 이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것이 생기면 다시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외모처럼 눈에 보이는 특징만으로 동성애자 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 성정체성 상담 통계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접수된 총 447건의 내담 사례 중 성정체성에 관한 내담은 24%(109건)로 나타났다. 성정체성 내담 통계는 20대 이상 성인 인구를 중심으로 조사·분석 했다. 성정체성에 관련한 내담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관한 내담이 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 자체에 관한 공포를 가진 내담자의 내담 사례가 33%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자신이 트랜스젠더인가에 관해 묻는 성정체성 관련 내담 6%, 자신이 양성애자인가를 고민하는 내담 4%, 자신이 무성애자인가를 고민하는 내담 2% 등이 접수되었다.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지 한 친구가 자꾸 눈에 들어와서 괴롭습니다. 그 친구는 동성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사귄 적도 있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 적도 없는데요. 그 애를 보면 자꾸 마음이 그래요. 계속 친구로 지냈는데, 그게 사실은 제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라도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을 꺼내면 친구도 못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그 애를 하루만 못 봐도 불안해요. 그런데 제 이런 감정이 그저 그 친구를 많이 좋아해서 헛갈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의 성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스물 몇 살이 되도록 이성애자임을 조금도 의심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감정에 당혹스러워요. 저는 레즈비언인걸까요?

성정체성에 관한 상담도 하고, 활동도 하다보니 주변에 많은 레즈비언이 있습니다. 주변 레즈비언들에게 “당신은 왜 레즈비언입니까?” 라고 묻고는 하는데, 답변이 모두 제각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레즈비언이 아니었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서부터 “교제 경험이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동성인 여성에게만 관심이 생긴다” 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답변은 천차만별입니다. “언제부터 스스로 레즈비언인 것 같았는가?” 에 대한 답변 역시 제각각 입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성정체성 혼란을 느낀 사람, 20대·30대·40대가 넘어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 사람 등 주변의 레즈비언들의 답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이성애자’ 로 정체화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성애자임을 단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우연한 계기를 통해 동성애적 감정을 경험하고, 동성애적 감정을 경험하는 자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 역시 위와 같은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성 친구나 지인들에게 갖는 특별한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성에게만 그와 같은 특별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들 주변의 많은 동성애자들의 존재가 증명하듯 동성을 향한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동성 친구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진 채 그 친구를 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혐오하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감정을 갖게 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큰 용기와 오랜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테면, 내 감정 자체를 나 스스로 건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일. 그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부정하고, 혐오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동성애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 읽어 보시고, 레즈비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많은 레즈비언들의 경험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도 할 수 없는 저의 성정체성이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보지 않고 있어요, 괴로워서. 너무너
무 좋아했는데, 말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말을 하고 거절
당했더라면, 지금만큼
이렇게 괴롭지는 않겠지
요. 그렇지만 절대로 말
할 수 없었어요. 말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어
떻게 볼지,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주위에 내 이야기를 해버리는 건 아
닐지, 하는 정말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이었죠. 차라리 될 가능성이 없
어서 고백을 못한 거라면 아니 사실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했지요,
그 사람은 이성애자였으니까요. 어쨌

남자를 좋아하면 남들처
럼 고백도 하고, 되면
사귀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낼 수 있을텐데.

든 그런 제 감정 이외의 것들 때문에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저주스러
웠어요. 저는 왜 여자를 좋아하는 걸
까요, 남자를 좋아하면
남들처럼 고백도 하고,
되면 사귀기도 하고 그
렇게 그냥 지낼 수 있을
텐데. 가능성 없는 사탕
을 다시 시작하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
면 좋을까요. 더 이상 제가 이반이라
는 걸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
는데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지.. 남자를 좋아하는 척하는 것도
너무 지겹습니다. 저는 왜 여자로 태
어난 걸까요..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잠시 머뭇거렸
습니다. 정말 여러 면의 갈등에 부딪치게 된 것 같네요.님께서 이반이라고 정체화
하기까지 겪었던 회피와 부정의 시간들을 떠올리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귀게 된다는 과정만 해도 결코 쉽지 않은데 상대가 동성이라면 아무에
게도 말할 수 없고, 나도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절대 내 감정을 상대가
받아들여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은 누구도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일이죠. 많은 사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동성을 좋아하게 되는 걸까'라며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한탄하고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저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라고만 말해버리고 싶을 때도 많지요.

람들이 '왜 하필 동성을 좋아하게 되는 걸까'라며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한탄하고 부
정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저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라고만 말해버리고 싶을 때도 많지요. 동성애자로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어려움이
님에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님께서您的 성정체성을 남자
를 좋아하는 척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숨기고 계신 것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라면, 계속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도 괴로
운데 주위에서까지 괴롭히게 되면 님이 무척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모두에게 숨기고 지내시기에는 너무 답답하실 것입니다. 이반 커뮤니티를 찾아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위 누군가에게 “내가 누굴 좋아하고 어떤 상황들 때문에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님의 숨통이 한결 트이지 않을까요? 또, 남자를 좋아하는 척하기보다는 “나는 눈이 너무 높아서 말이야” 하는 식으로 그저 연애에 무관심한 사람인 척 한다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멀리에 있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야” 한다든지 하는 편이 님에게 더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님께서도 남자를 좋아하는 척하기가 너무 지겹다고 느끼고 계시고, 또, 이 사회가 위낙 연애를 권하는 사회이다 보니 소개팅을 권하다 든가 선을 보라고 한다든가 하는 등의 주위 사람들의 괴롭힘도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험을 해 온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많은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요.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저는 저의 이런 성적체성이 정말 싫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캄캄합니다. 그동안 몇 번 연애도 했지만 친한 친구들한테 말도 꺼내본 적 없습니다. 연애하는 동안도, 자꾸만 남자를 만나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려고 있을까,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1년 전쯤 사귀던 사람과는 정말 매일매일 울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결혼도 할 수 없고 남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같이 살 자신도 없는데 아무리 좋아하면 뭐 하냐고, 우리 서로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 깨끗이 헤어지자며 괴롭기 짝이 없는 나날을 보냈었지요. 매일이 그랬는데, 아무에게 도움 되는 말을 들을 수도 없었고

누굴 만나면 제 성적체성을 자꾸만 자각하게 되어서 너무 싫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남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게 안 될까요...

하다못해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굴 만나면 제 성적체성을 자꾸만 자각하게 되어서 너무 싫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남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게 안 될까요, 동성애자는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가요? 죽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집에서 결혼하라는 이야기도 자꾸 나올 텐데, 그런 상황도 싫고 괴롭습니다. 예전에 한 번 죽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 때는 차마 약을 삼킬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더 괴롭고 막막해서 그냥 ‘죽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주변에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고민을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님과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죽음을 상상하고, 시도하는 일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은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고, 그와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그토록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변에 단 한명이라도 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죽고 싶어 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성애자 친구들을 만나게 된 많은 동성애자들은 말합니다. “진작 나와 같은 고민과 경험을 한 사람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찾아보신다면,님은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인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님은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성애자로서의 삶에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검색란에 ‘동성애’라는 낱말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끼리끼리>에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작 나와 같은 고민과 경험을 한 사람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일시적인 감정인걸까요?

지내다보니, 한 친구와 무척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도 나도, 서로 무척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냥, 내가 애랑 많이 친하고 싶은가보다, 애도 나랑 많이 친하고 싶은가보다 했지요. 주위에서 약간 이상하게 보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우정이 남들이랑 다른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잘 지냈어요. 저는 그 애를 보고 손을 잡고 싶다든지 키스를 하고 싶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손을 잡고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친구끼리 손잡은 걸로 이렇게 좋을 리가 없는데, 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키스를 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는 꼭 손을 잡고 걸어 다니고, 가끔 안기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

러워서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는 있었는데요. 갈수록 그게 아닌 것 같네요. 대체 이 상황이 뭘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래도 제가 이 아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전에는 남자를 좋아한 적도 많았고 그런데 말이죠. 너무 친하다보니 순간적으로 감정이 헛갈리는 걸까요? 누구나 동성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일시적인 건지 뭔지, 아무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 하네요. 저는 레즈비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젠가 ‘극단적인 이성애자 5%, 극단적인 동성애자 5%, 그 가운데 어느 지점인가에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레즈비언들 중 이성과 교제를 했던 사람들도 많고, 결혼을 한 사람들도 많답니다. ‘한번 이성애자는 평생 이성애자이다’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이성 친구에게 사랑을 느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제 감정을 지켜보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결국 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받아들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동성애자니, 이성애자니 하는 구분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하면서 구분하는 일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언젠가 스스로 (동성애자로든, 이성애자로든) “나는 ○○애자이자”고 정체화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의 대부분은 스스로의 정체체성에 이름을 붙이고, 긍정하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성 친구와의 신체적 접촉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좋아하는 사람과 키스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의 감정과 신체적 접촉에 관해 친구와 많은 대화의 기회를 가졌나요? 만약,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꼭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감정과 신체적 접촉에 대해 서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의논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끼리끼리>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감정과 신체적 접촉에 관해 친구와 많은 대화의 기회를 가졌나요? 만약,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꼭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감정과 신체적 접촉에 대해 서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의논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 인가요? 양성애자 인가요?

저는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한 건 여자한테 끌린다는 사실이에요. 여자애를 좋아하다가 또 한동안 남자애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곧 또 여자애를 좋아하기도 하고. 하여간 혼란스럽네요. 저는 동성애자들이 싫다던가 하는 편견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동성애자인 건 싫어요, 남들이 나를 동성애자라고 하는 상황은 더더욱 싫어요.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차라리 그냥 남자만 좋아하든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성애자의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오던 동성 친구에 대한 감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사회에서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 친구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이성교제를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결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성교

교제를 하고,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삶이 ‘정상적’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무엇이 ‘정상’ 이고, 또 무엇이 ‘비정상’ 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성애라는 감정을 갖는 것이 ‘비정상’ 이라는 근거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고,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을 선택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지혜롭게 이겨 나가면서 살고 있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에 대한 고민의 답은 하루 이틀 안에 찾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는 마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에 대한 고민의 답은 하루 이틀 안에 찾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는 마세요.

저는 양성애자일까요?

저는 2년 동안 교제해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직장 동료인 친구에게 자꾸만 마음이 끌려요. 사실, 이 남자친구와는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다시 누군가가 좋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여자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아직 고백을 해야지, 라거나 뭔가 적극적인 마음이 들지는 않는데요. 저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이 되네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반 친구를 무척 좋아했던 경험이 있기도 해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그 엘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양성애자일까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감정적·심리적·사회적·성적 친밀의 욕구를 느끼는 사람을 양성애자라고 합니다.님께서 생각하듯이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것이 분명하고, 또 과거 혹은 현재 동성의 누군가를 좋아한 것이 분명하고, 그것들을 모두 긍정하신다면 양성애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 정리를 하고 계신 듯 합니다만, 소위 '정상'의 이성에 정체성과 소위 '비정상'의 동성에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예 어느 한 쪽의 정체성만을 갖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님께서 지금 현재의 동성인 직장 동료에게 느끼는 감정과,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느끼는 감정들을 동일한 종류라고 생각하신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듯합니다.님이 양성애자인가, 혹은 동성애자인가, 혹은 이성애자인가 등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것은 결국 님의 몫입니다.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누구도 “너의 성정체성은 oo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서 살아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적극적인 결정 없이는 어떠한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의 시선이 괴로워요.

약 8년 동안 고민하고서 제가 이반인 걸 겨우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하필, 이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주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눈초리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남자같은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삼십대 초반인데요. 이 나이까지 결혼도 안하고 겉모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그런 상태이니 누굴 만나고 함께 살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데 남들이 나의 한 부분을 나쁘게 보고 있으니, 그 부분을 그저 없애버리고 싶을 뿐이에요. 어쨌죠?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저 부정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 이렇게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스스로가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정하고도 '왜 하필이면 나란 말인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인정하고 난 후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고요. 긍정하기까지의 세월동안에도 충분히 힘이 들

었는데, 긍정하고 난 후의 삶에 대한 생각이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권해 드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반 커뮤니티 활동

저 역시 이반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이상 내 성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을 시작해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나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긍정하는 과정도 나 혼자 해결해 왔기에 친구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 혼자만 아니었다면 그토록 힘겹게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 내가 동성애자임을 긍정하고 난 후에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서 이반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고, 같은 경험과 고민을 한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이제 혼자만 짚어지지 않아도 된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답니다. 저 역시 이반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이상 내 성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친구들을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씩씩하게, 밝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저는 남자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자라서,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저는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난 걸까요? 평소에 털털하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요.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좋고 떨려요. 앞으로 고백도 해볼 생각이예요. 사귀자고 까지는 모르겠지만. 정신병원에 가면 성정체성 장애, 뭐 그런 걸 판정해준다던데 가서 테스트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남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 잘못 태어난 거라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참 힘드네요. 정보를 좀 주시면 참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드러내기 어려운 고민이었을 텐데 이렇게 들려주시고 고민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셨군요. 고백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이지요? 매우 당황했겠어요. 보통 흔치 않은 일이라 배워 온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으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같은 성의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된다고 하는 사회에서 같은 성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자이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아주 옛날, 동성애니, 동성애자니 이런 낱말조차 있지 않았을 시기에 같은 성의 사람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같은 성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여자 몸에 갇힌 남자’로 생각하면서 남자의 삶을 살아 온 예가 많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의 시간동안 동성애자 인권운동도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에도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동성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거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도 넓고 깊어지고 있어요. 정신과에 가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정신과는 물론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판별을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동성애가 정신질환에서 삭제되었어요. 이미 정신의학계에서는 동성애자 정신질환이 아님을 공표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신경정신과 병원에서는 동성애자를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성애자 인권을 탄압하는 것으로 봐야하는 범죄와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미 동성애 등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있던 동성애자 차별조항도 얼마 전에 삭제되었고요. 동성애는 이상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의 또 다른 사랑일 뿐이죠. 동성애자 역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인걸요. 나 스스로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나 스스로가 동성의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만큼 혼란스럽고, 그만큼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답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이를테면, 이렇게 상담을 찾는대거나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본가든지, 관련 도서를 찾아 읽어 본가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계속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트랜스일까요?

우선 전 남자같은 외모를 하고 다닙니다. 짧은 커트에 옷도 항상 헐렁한 스타일만 입고 다닙니다. 여자들과 다닐 때 남자들이 해야 하는 행동을 하곤 하죠. 택시 문을 열어 준다든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대신 들어준다든지. 이반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직장 사람들과 있을 때 이러면 약간 난감해집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너 남자냐, 너 레즈냐,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요, 그게 너무 익숙해서. 저는 쪽 저를 그저 이반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남자같이 하고 다니는 건 그냥 편해서구요, 제가 여자라는 거에 있어서 불편하다거나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 남자처럼 보이면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실은 제가 속으로 '난 남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자니깐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실은 제가 속으로 '난 남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트랜스 젠더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남성이라 인식하고 행동해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남성으로 태어난 하리수씨가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 경우에서 하리수씨는 트랜스젠더인 것이지요. 트랜스젠더인 하리수씨의 경우, 스스로의 성정체성은 이성애자입니다. 이성인 남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트랜스 젠더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이유 역시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무궁무진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매우 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을 자신의 성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 온 경험을 가집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성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스스로 남성이라고 정체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트랜스 젠더 중 실제로 가슴 절제 수술 등의 수술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수술도 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님의 경우, 남성과 같은 외모와 여성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이유로 자신이 트랜스 젠더가 아닐까하고 고민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트랜스 젠더로 규정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의상 스타일, 머리 스타일, 나의 행동 등 개별적인 몇몇 욕구나 현상으로 내릴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트랜스 젠더의 경우 성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트랜스

.....
그러나 자신을 트랜스 젠더로 규정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의상 스타일, 머리 스타일, 나의 행동 등 개별적인 몇몇 욕구나 현상으로 내릴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

젠더가 성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의 성을 올바르게 찾은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나의 생물적인 성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인식하는 사회적인 성을 지향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트랜스 젠더인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은 성인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소위 남들이 말하는 ‘남자같은’ 외모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저 편하기 때문에 바지를 걸치는 것이고, 티셔츠를 선호하고, 긴 머리 관리하기가 너무나도 번거롭고 불편하여 짧은 머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주변에서 ‘남자같다’고 종종 평하지만, 제 자신이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남성이 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1970-80년대 동성애나 동성애자 등의 개념조차 없던 당시에 동성인 사람과 사랑을 한 레즈비언들의 경우, 자신을 ‘여자 몸에 갇힌 남자’로 인식한 레즈비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현재에까지 남성의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그 중의 일부는 자신이 여성임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우리 단체 회원들 중에는 자신이 동성인 여성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여성인 자신을 부정하고 남성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이제는 자신이 여성임을 긍정하고, 같은 성인 여성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트랜스 젠더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일은 내가 레즈비언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투자한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든, 조금 더 나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방문, 고맙습니다.

남자의 몸이지만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전 비록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여성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꽤 오랫동안 사귀어 왔지만, 두 번 꼬여버린 성정체성을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애인도 저를 받아들이지 못했었거든요. 아니,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내가 여자라는 것, 레즈비언이라는 것어요. 수술을 해볼까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군요. 도리 없이 이렇게 '남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젠 정말 제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저를 반기지 않아요. 여성 이반 사회에서도 장난을 치는 줄 알거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성 이반 사회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 같은 분 또 계신가요?

동성애자와 트랜스 젠더에 관한 사회적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님의 성정체성에 관한 이해는 아직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끼리끼리> 상담실을 통해 관련 모임 문의 등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우, 남자 레즈비언(male lesbian)으로 정체화한 사람들의 친목모임과 인권운동단체가 다수 결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그와 같은 모임들이 개설되고, 인권 운동 단체들이 설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남자 레즈비언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낮아서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이반 커뮤니티 내에서 님이 겪을 고초를 상상하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우선은 이런 방법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상에는 트랜스 젠더에 관한 많은 모임들이 많습니다. 트랜스 젠더를 위한 친목 모임들도 다수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와 같은 모임에 참가 하시면서 트랜스 젠더이자 레즈비언인 님의 성정체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임 활동을 통해 트랜스 젠더인 레즈비언들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관련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커뮤니티 러쉬 <http://www.rush.pe.kr>
- ▶ 김비넷 <http://www.kimbee.net>
- ▶ 화려하지 않은 고백 <http://www.okama.pe.kr>

성정체성이 너무 복잡해요.

왜 자꾸 예쁜 여자들에게만 관심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저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그렇다고 말하고 싶어서 말한건데 저는 왠지 설레네요. 이 아이랑 사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사실 저는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다 싫어요. 왜 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싫어요. 근데 남자 연예인은 좋아하거든요? 대체 저는 어떤 사람인건지.. 하여간 딱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래저래 고민이 되네요.

'나의 성정체성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성정체성은 한 순간에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변하기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누가 결정지어 줄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므로 제가 님에게 단순한 정황만을 근거로 성정체성을 속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레즈비언은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심리적·사회적·성적 관심을 갖는 사람을 일컫지요. 즉 성정체성이란 오로지 성적 관심 때문에 혹은 남자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훨씬 복잡적이고 오랜 시간의 고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님이 맺고 계신 사람 관계나 그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들을 지켜 보세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많아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 온전히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혹시 동성애자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회가 성소수자를 비정상이라 말한다고 해서 억지로 고민의 범주에도 끼워 넣지도 않으려는 것은 오히려 성정체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고민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성정체성에 관한 고민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친구와 섹스를 했어요.

저는 여자에요. 무척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술김에 장난으로 뽀뽀를 시작한 것이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다보니 성관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4개월쯤 된 것 같은데요. 쭉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어요, 이 친구랑. 이게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반인걸까요? 궁금합니다.

동성과 섹스를 했다고 해서 동성애자인 것은 아닙니다. 성적 관심 이외에도 동성에게 정서적·감정적·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호감이 가는지를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본 이후에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지요. 님이 친구분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으셨다고 해도 님이 자신을 동성애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님을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친구분에 대한 감정이 남다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섹스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 오셨다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혹시 친구분은 님을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대해 오신 것일 수도 있으니 일단 친구분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친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성정체성에 관한 고민까지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일단 친구분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친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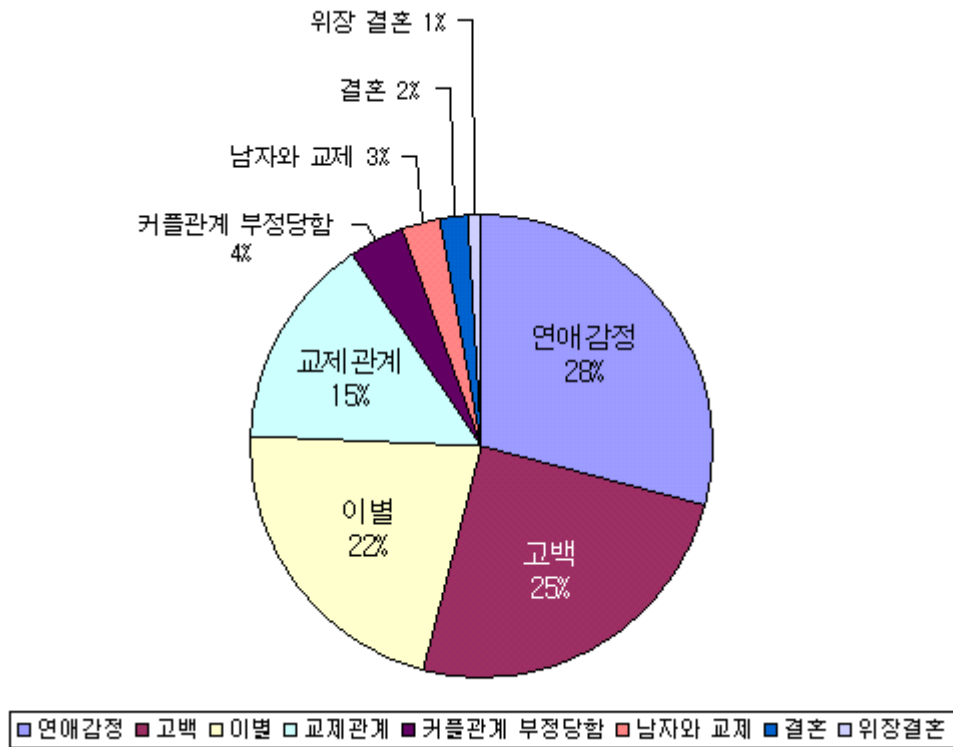
저는 무성애자인가요?

서른이 넘도록 아무도 좋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요즘 들어 주위에서 왜 결혼을 안 하나냐 등, 누굴 만나라는 등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제 옷차림 때문에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오해도 받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좋아해본 사람이 없으니 저의 성정체성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딱히 제가 폐쇄적인 성격이라거나 한 건 아니에요. 친구도 많고 원만히 잘 지냅니다. 별 문제를 못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주위에서 자꾸 저를 이상하게 보니 저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님과 같이 특정 성, 혹은 대상에 대해서 감정적·심리적·사회적·성적으로 정도 이상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보통 ‘무성애’ 혹은 ‘무성애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는 합니다. 무성애도 다양한 성정체성 중의 하나로 분명히 존재하는 정체성입니다. 꼭 연애를 해야 하고 누군가와 짝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한 면에서 실패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사회에서 무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님이 겪으신 것처럼 성격이 폐쇄적이라거나 사회성이 없다는 오해를 받는다면, 어딘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식의 노골적인 눈총을 받게 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과도하게 연애 원하는 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에는 결혼제도가 있습니다. 이성애 커플, 공적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정상이라는 관념을 확산시키는 결혼제도는 다양한 성정체성 및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 있지요. 무성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혼’으로 끝인해야만 한다는 강압은 자신이 생애 걸쳐 형성해 온 지인들과의 공동체를 무시 받는 것이며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괜한 스트레스와 오해를 받아야 하는 일이겠지요. 성정체성은 변화가 가능한 것이므로 님이 앞으로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님이 형성해 놓은 관계에 깊이 만족하고 있으시다면 굳이 주변의 성화로 인해 자신의 무성애적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애자’라고 단정하고, 정체화하는 일이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일이지도 모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성애도 다양한 성정체성 중의 하나로 분명히 존재하는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무성애적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동성 교제 상담 통계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47건의 내담 사례 중 동성 교제에 관한 내담 사례는 총 24%(1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 교제에 관한 내담 사례는 연애 감정 자체에 관한 내담 28%, 교제 과정상에 ‘고백’에 관한 내담 25%, 이별에 관한 내담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교제 관계 내·외부에서의 갈등 15%, 주변인들로부터 커플관계를 부정당한 경우에 관한 내담 4%, 이성과의 교제에 관련한 갈등 문제 3%, 이성 결혼을 둘러싼 갈등 문제 2%, 위장결혼의 가능성에 관한 내담 1% 등으로 나타났다.

애인과의 관계를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어 괴롭습니다.

저와 제 애인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둘 다 기반이 닳아여있는 것도 아니고 헤어 나가야 할 일들이 한 둘이 아니지만 함께 할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애인의 부모님들이 우리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괴로워

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애인이 지금 누구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조금만 집에 늦어도 저를 만나고 있는 것이냐고 추궁 하십니다. 그런 생활의 연속이다 보니 애인은 부모님께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주 부모님과 싸워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쓰럽고 안타까워 미치겠습니다. 애인은 커밍아웃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부모님을 평생 속이고 사는것도 못할 것이지만, 자식이 동성애자라는 슬픔을 안겨드리

는 것보다는 나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춘다고 해도 끝까지 감추어질지가 두렵습니다.

만약 애인의 부모님이 저희 사이를 아시게 되고 ‘부모를 택하든가 그 여자한테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다그치신다면, 애인이 과연 절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저희,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는, 게이와의 계약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대부분은 커플관계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친구나 가족들에게 애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할 수 없어 괜한 오해를 사게 되기도 하고, 애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인들의 성화 때문에 남자와 소개팅을 한다던가 선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부모님에게 커플 관계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의 문제는 강제사항이 되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남자친구 하나 없는 것인지, 왜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추궁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넘처럼 부모님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눈치 채신 경우 더욱 큰 싸움이 지속됩니다. 부모 자식간에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오가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며 그 와중에서도 계속 부모님을 속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죄의식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화가 지속되는 경우 차라리 커밍아웃을

동성 커플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대부분은 커플관계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해 훌가분해지자-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의식과 자신을 너무 몰라주는 부모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 등에 고통받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커밍아웃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심리적·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해줄 만한 마음 상태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경우 선불리 커밍아웃을 했다가 부모님에 의해 구타를 당하거나 집에 갇히게 되기도 하며 경제적 지원도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도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하구요. 따라서 넘쳐넘 부모님이 자신과 동성 애인과의 관계를 눈치 채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선불리 커밍아웃을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니란 것을 납득하실 만한 상황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친분이 없고,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만을 위한 계이를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위장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평소 친분이 없고,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만을 위한 계이를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계이와의 관계가 공식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여러 법적 문제도 얹히게 되므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인지 등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혼 문제를 놓고 부모님과 끊임없이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자기 자신의 마음과 물리적 상태를 안정적으로 가꿔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준비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고백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도 있는 일반이에요. 포기하려고 골백번 마음을 고쳐먹었지만 보기만 하면 만지고 싶고 내 옆에만 두고 싶고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혹시 눈치 채 저를 경멸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더 친절하게 대하고 친구 이상의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주의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며 술 마시곤 저에게 기대오는 그녀의 행동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여전히 저를 친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녀에게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더 이상 친구인 상태로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폭발했어요. 참지 못하고 고백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정말 좋은 친구로 생각했는데, 그런 관계를 끊게 만든 제가 원망스럽다고요. 만나면 서로 괴로워질 테니 친구로 지내는 것도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친구로라도 있게 해달라고 붙잡고 싶은데 자꾸 저를 피하려고 해요. 동성끼리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만 하네요. 그녀에게 쓰레기로 비취질 내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차라리 남자로 태어났다면 하는 생각만 하루 종일 들다가도 혹시 그녀가 학교에 말하고 다니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왈칵 밀려오기도 하구요.

'당신을 좋아한다'는 고백은 무척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요. 특히 동성애자에게는 고백함과 동시에 커밍아웃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여러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선 상대가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은 없는지,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부터 살피게 되지요. 물론, 상대가 이성애자였다가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마저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더라도 마음을 접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 없이 좋아한다는 고백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자신을,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폭언을 듣게 되면 충격과 이후의 고통이 훨씬 클 것입니다. 상대에게 호모포비아가 있더라도 고백 전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쌓아놓는다면 아무래도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덜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과정은 하루이틀이 걸리는 일도 아니며 아무리 공적인 자리에서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해도 막상 자신이 고백을 받게 되면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으니 장담할 만한 일이 아니긴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위험부담을 안고 용기를 내 고백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좋아하고 있는 사람에게 '쓰레기' 취급 받는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려운 고통이겠지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백한 상대방에게 님이 고백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차라리 남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백한 상대방에게 님이 고백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님의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것은 아웃팅이며 그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큰 폭력이 될 지를 확실하게 인지시키십시오. 고백한 것과는 별개로 마땅히 배려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고 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서로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만 헤어졌습니다. 우리 둘 모두 세상의 눈이 무서웠고, 미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저와 한참 사랑을 나누다가도 문득문득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괴로움에 누군가는 먼저 떠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거라면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며 제 심장을 들쑤셔 놓기도 했지요. 그녀만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우리 사이를 눈치 챌지도 모를 학교 선후배의 시선이나 부모님의 추궁이 걱정되었고,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 받게 하고 있다는 것도 비참했구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사랑을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계속 가져가야 할지, 외롭더라도 두려움은 없을 혼자만의 삶을 택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먼저 이 세계에서 살 자신이 없다며 1년 만에 절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술을 마시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도, 그녀도 마찬가지로 것임에도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괴롭습니다.

동성커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떠돌기도 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동성애자의 교제가 이성애자와 달리 자유분방하다기 보다 관계 자체가 사회적 편견과 벽에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커플 관계를 드러내지 못하는데서 오는 여러가지 오해와 스트레스,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오는 불안감, 결혼의 압박 등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연애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레즈비언 커플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편견과 맞닿아 있다보니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 봤자 소용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다'며 헤어지는 커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도 이런 무기력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하려 해도 끊임없이 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취급 되다보니 어느새 자신이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생각되기도 하셨을 겁니다. 특히 애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레즈비언임이 극명하게 드러나므로 애인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둘 관계가 혐오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헤어지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레즈비언 커플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편견과 맞닿아 있다보니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 봤자 소용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선 각자, 또 함께 레즈비언임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헤어지기로 결정 하셨어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여지가 있으신 거라면 둘 관계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무기력함이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찾아 활동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둘만 고립되지 말고 어떤 통로든 둘 사이를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그녀가 절 피하는군요.

그녀와 전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입니다. 저도 그녀가 절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고, 동거도 3개월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모두 부정하고 저와 연애했던 적도 없고, 그냥 언니같이 생각했던 거라고 말하더군요. 어떻게 그냥 아는 언니에게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묻자 원래 친한 여자친구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되려 화를 냅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는 친구들에게 여자한테 전혀 관심 없다고 말하고 다닌다는데, 이제는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미안함도 없이 남자를 만나고 다니며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됐다고까지 말하는 그녀에게 저는 그냥 장난으로 만나본 사람이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불행하게도 레즈비언 커플 중 한명이 이전 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사귀었던 시간을 아예 없는 것처럼 말한다든가 이 경우처럼 단지 언니로, 동생처럼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함께 한 시간들이 부정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는 경험은 정말 다시 겪기 힘든 끔찍한 경험일 것입니다. 게다가 레즈비언 커플 관계는 주변에도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헤어지더라도 본인이 왜 고통스러운지를 드러낼 수 없어 더욱 힘들실 겁니다.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문제를 해결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라는 데 대한 불안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사회적 편견 그대로 본인과의 관계가 정말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건 사귀는게 아니라 그저 친한 친구사이다, 여자끼리 어떻게 연애가 가능하냐는 식으로 주입받아 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레즈비언 커플 관계에서는 상대가 가지고 있을 동성커플 관계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해해주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상대가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을지라도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없었던 일로 취급하는 것은 본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지요. 사회에서 인정하는 하지 않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관계라 하더라도 함께 한 시간은 분명 존재 했었고 동성 커플의 관계가 그저 친구사이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되, 상대가 그런 태도를 취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고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성애자였습니다.

저는 그 언니를 알기 전엔 한 번도 여자에게 호감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쉬하지 않았다면, 그 언니에게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구애 해오는 언니에게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저를 너무나 아껴주었기에 신뢰감이 들었고, 저도 언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아껴주던 언니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며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남자를 만나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저를 이렇게 이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자신 이면서 무책임하게 떠나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해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결국 제가 택한 건 자살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술을 마셨었는데 깨보니 병원이더군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를 사귀면서 잊으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서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겠습니다. 성관계도 거부하게 느껴지구요. 저는 다시 일반으로 돌아가 수 없게 된 것인가요?

이별을 겪고 난 이후 고통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게다가 이성애자였던 본인이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동성커플'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사귀자는 제안을 허락 하셨을 텐데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니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살을 시도하셨던 것이 실연의 아픔 때문인지, 아니면 성정체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정체성은 누가 마음대로 만들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여자와 사귄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정의 내리는 것은 아니며, 다시 남자를 사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와 사귄 경험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어느 쪽이든 간에 한 두 번의 경험으로 성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을 두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정체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자를 사귀어 보려고 조바심치기 보다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고 올바른 정보를 접해 보는 것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판단하는 데 더욱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한 섹스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일반입니다. 애태우다 어렵게 용기를 내 고백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더군요. 포기하고 잊으려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자꾸 스킨쉽을 유도해와 어리둥절합니다. 일반임이 분명한데도 제가 만지면 신음소리를 내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가끔 같이 자기도 하는데 그녀는 제가 남자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녀는 저를 사랑해서 저와 같이 자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섹스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남자와는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제 사랑이 그냥 거부당한 거라면 이렇게 분노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성 간의 관계를 이성애자의 교제와 달리 가벼운 것으로 취급해 아무리 진지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에 의해 한 때의 감정 혹은 친구간의 도가 좀 넘은 장난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이미 알린 상태에서 스킨쉽을 했던 것이므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해하셨던 것은 당연합니다.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우선 상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동성 간의 이러한 관계도 진지한 것임을 다시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상대가 동성 간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면 단호하게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괜한 감정소모를 줄이고 이후의 고통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동성 간의 이러한 관계도 진지한 것임을 다시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녀가 결혼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녀는 홀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어머니는 유독 결혼을 서두르셨지요. 집안의 성화에 괴로워하던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포기하고 결혼해도 되겠냐고요.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경제적 기반도 잡히지 않았는 데다가, 저는 그녀와 같은 여자니까요. 그녀가 불행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견디기 힘들 것 같아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버렸습니다. 평생 드레스 따위 입지 않을 거라던 그녀가 억지로 결혼 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헤어진 후로 한 번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

다. 괜히 연락해서 남편이나 가족이 그녀를 의심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구요. 그러나 간간히 들려오는 그녀에 대한 소식은 저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생활인 듯합니다. 최근에 가끔 말없이 끊기는 전화가 그녀인 것만 같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한 결혼생활로 밀어 넣은 것이 꼭 저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그녀를 잡았어야 했을까요? 그녀는 잡아주길 바랬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나뻐던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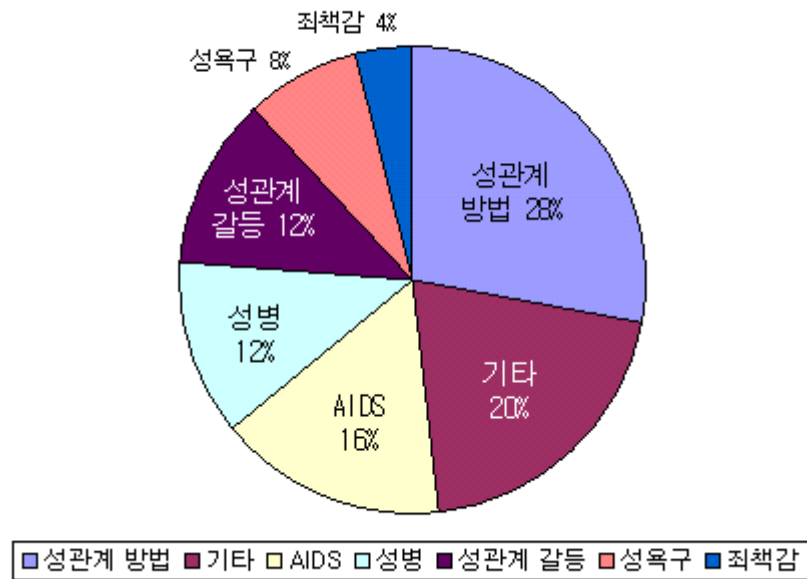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결혼을 중용하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커플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한 채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그런 애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텐데 안타깝게도 레즈비언 커플들은 이런 경험을 흔하게 겪고 있지요. 아무리 주변의 성화가 심했다라도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맺어왔던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관계들을 정리해야 하고 더욱이 지난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만 하니까요. 그녀를 지켜보는 님은 자신과 사랑했던 과거를 부정당한 것 같아 훨씬 더 힘들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한 채 감행한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흐르는 경우이겠지요.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빨리 해버리자'라거나 '아무하고라도 상관없다'라는 감정적인 생각으로 결혼 상대를 쉽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결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분의 불행도 이와 같이 결혼을 해야겠다는 강박으로 결혼 상대를 신중히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예전 애인과의 관계 뿐 아니라 자신이 맺어왔던 레즈비언 커뮤니티 친구들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고립감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결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함께 했던 친구들이 여전히 그녀 옆에 존재 할 것이라고 안심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한 채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그런 애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텐데 안타깝게도 레즈비언 커플들은 이런 경험을 흔하게 겪고 있지요.

□ 성관계 상담통계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47건의 내담 사례 중 성관계 관련 내담은 6%(25건)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성관계 방법에 관해 문의하는 내담 28%로 나타났다. 에이즈 관련 내담 사례는 16%, 성병 관련 내담 12%, 성관계 안에서의 갈등 문제 12%, 성욕구에 관한 내담 8%, 죄책감 4% 등으로 나타났다.

동성간에 안전한 섹스를 하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애인과 수개월 째 섹스를 해왔습니다. 성관계나 그런 것에 관한 지식은 없어도 주위들은 것들로 어느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여자들끼리 섹스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 애인이 성관계 갖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 부분이 가렵기도 하고, 빨갛게 부어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하고, 냉도 이전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요. 혹시 성병 같은 게 아닐까 걱정되더군요. 여자들끼리 해도 성병에 걸리나요?

레즈비언 간 섹스는 게이나 이성애자 간 섹스보다 성병이 옮을 위험이 훨씬 적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섹스를 하는 것이 넘 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겠지요. 레즈비언간 섹스에서 성병이 옮을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질 분비물 내 세균이 입이나 손, 성기의 상처를 통해 전달되기도 하고 강한 섹스를 했을 때 성기 부위에 상처가 나면 그곳을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성기부위를 마찰하거나, 성기구를 공동으로 쓰거나 하면 더

것은 성기구를 따로 쓰는 것이겠지요. 또한 성기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말은 비누로 자주 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질 부위는 산성으로 유지되어 있어 세균이 잘 침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누로 씻으면 이 부위가 중성이 되어 세균이 보다 잘 자라게 되지요. 성기 부위는 따뜻한 물로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성기 부위가 습하면 세균이 보다 잘 자랄 환경이 됩니다.

이외에 만약 본인이나 파트너의 질 분비

레즈비언 간 섹스는 게이나 이성애자 간 섹스보다 성병이 옮을 위험이 훨씬 적은 게 사실입니다

잘 전염이 되겠지요. 안전한 섹스가 되기 위해서는 되도록 입과 손 그리고 성기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게 섹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을 되도록 짧게 깎아 두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한 방법이겠지요. 손가락에 콘돔을 끼우거나 성기에 페미돔을 덮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기구를 공동으로 쓰는 경우에는 자주 살균 소독하시고, 더욱 좋은

물의 형상이 노래지거나 냄새가 나는 등 변화가 생기면 성병을 의심해서 산부인과에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더라도 본인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점은 안심하십시오. 여성의 성병은 보통 오랫동안 재발하면서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병이 의심되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끼리도 에이즈를 조심해야 하나요?

여기 저기 글을 읽어 보니깐 동성애하면 에이즈 걱정하라는 말이 가장 많던데, 얼마 전에 한겨레 기사를 보니 에이즈 환자 중에 여자들끼리 섹스해서 에이즈 걸렸다고 생각한 사람도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 제 앤과 섹스하기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에이즈에 걸릴까 해서요. 여자들끼리 섹스 해도 에이즈에 옮나요? 그게 걱정되면 섹스하지 말아야 하나요?

동성 간 섹스를 하는 것과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동성 간 섹스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적 편견 때문에 퍼진 사회적 편견일 뿐이지요.

일반적으로 에이즈가 감염되는 통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에이즈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및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할 경우,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을 경우, 에이즈에 감염된 산모의 임신이나 분만 도중에 혹은 감염된 엄마의 수유를 통해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에이

즈 보균 상태가 아니면 레즈비언간 섹스이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릴 이유는 없으며, 안전한 성관계를 가져왔으면 에이즈에 걸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동성간에 섹스만 해도 에이즈에 걸린다는 생각은 이성애 사회가 만들어낸 지독한 편견이지요. 님이 보신 한겨레 기사는 동성애자가 가질 수 있는 걱정을 과장해서 선정적으로 쓴,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입니다. 이미 동성애자 단체들이 그 기사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섹스할 때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성 간 섹스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적 편견 때문에 퍼진 사회적 편견일 뿐이지요.

동성간의 성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둘 다 한 번도 섹스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서로에게 첫사랑이거든요. 서로 섹스를 원하고 있는데도 여자들끼리 섹스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간의 성관계 방법에 관해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방법이 있고, 커플들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성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요. 일반적인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섹스 이전에 서로의 성감대를 찾아서 자극하는 전희 단계를 가진 후에 손가락이나 성기구를 삽입해서 하는 삽입섹스, 성기 부위를 입술과 혀로 자극하는 오랄 섹스, 서로의 성기를 마찰시키는 트라바디즘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문을 자극하는 애널 섹스를 하기도 하구요. 한 가지 방

법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지넷(<http://tgnet.co.kr>)의 <마법의 성>이란 코너에 가 보시면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곳에 좀 더 다양한 섹스 패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해피이반(<http://happy2van.com>)이란 사이트에는 <섹스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여러 편의 가이드 비디오가 올려져 있습니다. 한 채운 씨가 쓴, '레즈비언 섹스 말하기'라는 제목의 책도 buddy79.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관계를 청산하고 나면 이성과도 섹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 살 중반이 될 때까지 한 사람만 주욱 사랑해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 첫사랑인 셈이지요. 그녀는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저라는 사람이 좋다구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를 보니 그녀는 남자를 좋아해 언제라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건 그녀가 저와 헤어지고 나면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 예요. 한번 동성애 관계를 맺으면 다시 이성애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지요.

동성과 섹스를 한다고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며 동성과 섹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성과의 섹스를 불쾌하게 생각할 거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인 것과 동성과 섹스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성에게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인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과 섹스를 한다고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며 동성과 섹스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성과의 섹스를 불쾌하게 생각할 거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라고 해서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분들 중에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은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니, 동성애자는, 혹은 동성과 섹스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님과 님의 애인인 분은 섹스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인

모든 면에서 관계를 맺어 오셨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모두가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 하는 것은 아니니 혹시 님의 애인분께 동성애자임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성정체성은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자기 자신만이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성과 연애를 하면서도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양성애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동성애자로 살아갈 삶이 부담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자인 것이 불안해서라면 레즈비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님과 연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남자와 연애를 하고 싶어서라거나 님과 헤어지고 싶어서라고 선불리 판단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섹스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도 없고 별로 스타일도 아닌 사람이 있는데 같이 잘 때마다 이상하게 스킨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욕구 불만이려니 했는데 반복되다 보니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에 와서 마음에 없다고 말하기도 미안하고... 확실하게 처음부터 마음을 정하지 않은 저의 문제가 크겠지만 정말 그 친구에게 무어라 해야 할지... 그 친구는 갈수록 저에게 기대하는 게 커지는 거 같습니다. 이러다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무어라 할지 모르겠구요. 조언 바랍니다.

섹스는 꼭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의 일부분이 섹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한 사람과만 섹스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섹스 파트너 관계를 맺기도 하지요. 그러한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과연 상대도 다만 섹스파트너인 관계를 원하는지 사전에 물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요. 만약 상대방이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행동을 취하시던지 상대방과 대화

어떤 행동을 취하시던지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상할까봐 계속 이야기하지 않고 차일피일 지내는 것은 이후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나은 해결책이 아닐까요.

애인이 성관계를 피합니다.

애인이랑 사귀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전 정말 이 사람 좋아하구요. 만나면 뭐든 다 해 주고 싶어요. 평소에 이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성관계 문제에만 들어가면 이 사람은 그런 거 하기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관계가진 것도 열 번이 채 못 될 정도예요. 그냥 자기는 성욕 자체가 별로 없는 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요? 아님 동성간의 성관계가 더럽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저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성애자인 줄로만 알았다고 하거든요. 갈수록 욕구 불만은 쌓여만 가고.. 뭐라고 조언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섹스는 관계를 맺는 방식의 일부분일 뿐이므로 님과의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님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애인 분이 성욕이 없는 분일 수도 있고, 성관계에 관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님의 말씀대로 은연중에 동성간의 성관계에 대한 혐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님과 같은 상황을 겪는 동성애자 커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감한 문제라 잘 이야기기도 못 하고 지내기도 하죠. 다른 이에게 상담하기도 힘들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플 간 대화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지나치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조르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구요. 만약 정말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면 성관계 자체보다 전반적인 동성애혐오 감정의 문제이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동성애자 모임 활동을 한다거나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책을 함께 읽거나 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님의 욕구만 계속 참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님과 애인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는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애인의 성욕이 지나칩니다.

사귀지 2년 되어 갑니다.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1주일에 1번 하면 좋다고 말하던 애인이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자고 조릅니다. 오래 사귀면 점점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희는 반대입니다. 횟수 뿐만이 아니라 애인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해서 전 힘들지만 내색 안 하고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정말 피곤한데,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애인이 실망할까봐서요. 어찌 하면 좋을까요?

커플들 간의 성 생활이 언제나 유쾌하고 즐거운 것은 아니지요. 서로 일치하지 않은 지점도 많고, 그게 커플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때마다 서로가 즐거울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나가면서 성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어려워합니다. 자칫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배려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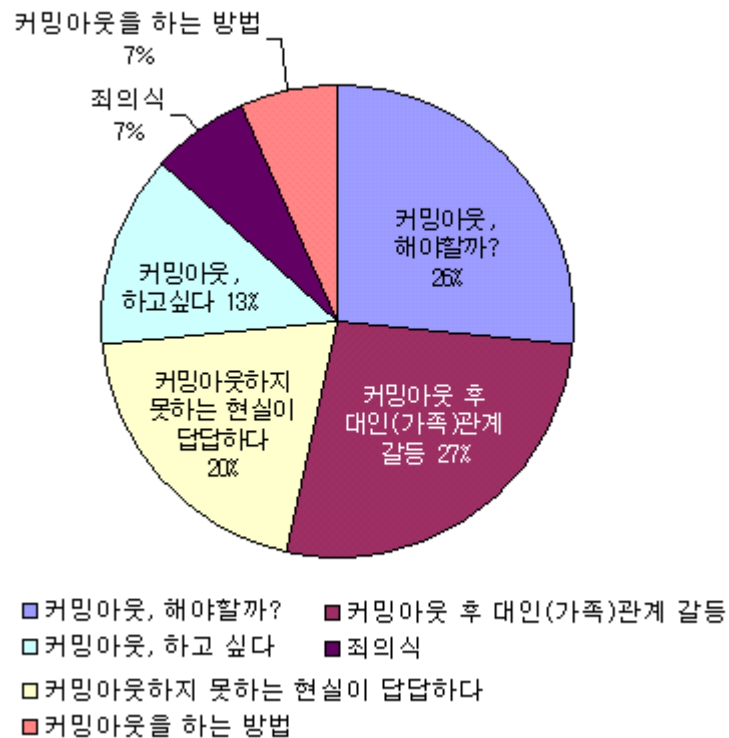
애인 분의 성욕이 지나치다고 여겨지고, 그것이 본인의 성생활을 즐기는 데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다소 애인의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님의 불만이 이야기 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간다면 성생활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나 애인 분에게 있어서나 좋지 않겠지요. 한번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관계는 함께하는 것이므로 둘 모두 즐거울 때 애인분도 더 즐거울 수 있으실테니 분명 이해해 주실 겁니다.

오르가즘이 안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앤이랑 사귀지 두 달 되어 가요. 섹스를 지금 애인이랑 처음 해 보았거든요. 근데 느낌이 안 왔어요. 흥분도 잘 안 되고.. 처음에는 그냥 처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자꾸 해도 흥분도 안되고 오르가즘이란 것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워낙에 다 그런가보다 하다가도 혹시 내가 이 사람 진짜 좋아하는 게 맞을까 고민도 되고. 다른 건 다 만족하거든요. 근데 왜 오르가즘이 안 오는 걸까요? 답을 듣고 싶어요.

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 채 섹스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적 흥분은 일반적인 방법, 기술적인 멘트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발만 간지럽혀도 흥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전희 시간이 있어야 하는 사람 등 사람마다 느끼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지요.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파트너분과 함께 찾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일례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했던 커플의 경우에는 애무의 기간을 늘린다든가 분위기를 낭만적으로 꾸민다든가 장소를 바꾸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두 분이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커밍아웃 및 대인관계 상담통계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47건의 상담 사례 중 커밍아웃 및 대인관계에 관한 상담은 4%(15건)를 차지했다. 커밍아웃 후 가족을 비롯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에 관한 상담이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는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좋을지,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상담이 2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내용의 상담은 20%,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낸 상담이 13%. 커밍아웃을 하는 방법과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는 상담이 각각 7%씩을 차지했다.

고백한 후 어색해졌어요.

전 지금껏 줄곧 이성애자인 친구를 짝사랑 해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반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었지요. 그 친구가 일반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포비아가 있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술 마신 정신에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 고백해 버렸습니다. 나는 여자만 좋아해왔고 그 상대는 너라고요. 그 친구는 그 당시엔 좀 당황한 것 같았지만 그럭저럭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론 저에게 연락을 잘 해 오지 않네요. 그래도 1주일에 몇 번씩 연락 주고받던 친구였는데. 학교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도 않아요. 제가 괜한 짓을 한 걸까요? 술김에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이 많이 후회되네요. 그냥 평범한 친구로만 남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 친구와 다시 그냥 친구로라도 잘 지내고 싶어요. 어찌 해야 하나요?

중 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 그래도 고백은 하기 힘든 것인데, 동성애자에게는 고백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상대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호모포비아는 없는지도 미리 생각해보아야 하니까요. 님이 좋아하시는 분께선 이성애자라도 호모포비아가 없는 분이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호모포비아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정작 자신의 주변인이 동성애자라고 하면 태도를 달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혐오적인 시선을 보내지는 않더라도 눈에 띄게 피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대해 본 경험이 없어서 어색해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속아왔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낀 것일 수도 있지요. 님이 고백한 상대방께서도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 갑작스런 고백에 당황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일단 상대방께 좋은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는 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 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님이 고백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님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는 아웃팅이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세요. 고백한 것과는 별개로 님께서 당연히 배려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분께 좋은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는 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 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해야할까요?

부모님이 저의 성향을 알아 버렸습니다. 동생이 제가 쓴 일기와 옛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다 읽어보고 부모님께 고자질해버린 모양이에요. 부모님은 어찌 된 일 이냐고 저에게 화를 내십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동성애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하 셧고, 완고한 성격이십니다. 그리고 전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아직 사회인으로서 독립도 하지 못한 상태이구요. 일단 적당한 말로 둘러대긴 했습니다. 한때 그런 거고 지금은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여러 가지로 의심이 가나 봅니다. 저에게 오는 전화 하나하나도 체크하실 정도예요. 언젠가는 터질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벌어지고 나니 어찌 할 바 를 모르겠군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할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동생에 의해 부모님께 아웃팅 되셨군요. 정말 많이 놀라고 괴로우셨을 겁니다. 커밍아웃은 누구를 상대로 하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동성애자들 대부분이 부모님께 만 큼은 더더욱 숨기려합니다. 되돌아오는 파장이나 아픔이 훨씬 크기 때문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커밍아웃을 결심하는 분들, 그 리고 님의 경우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눈치채게 되셨을 때 차라리 뻔뻔이 밝히자는 생각에 커밍아웃을 결심하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로 신중해야 합니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동성애자가 자녀라는 사실은 부모님께 엄청난 고통 일 것이므로 그런 고통을 감당하실만한 상태이신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 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동성애자인 것을 안 이후 ‘정상’으로 고쳐보겠다고 자식을 가두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거나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이 독립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할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부 모님께 커밍아웃하시는 것보다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솔직해지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인이 부모님께 보다 잘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커밍아웃 하시는 것이 본인이나 부모님에게나 더 좋은 방법입 니다. 일단 님이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는 흔적을 남기지 마시고 당분간 행동을 조심 하시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커밍아웃을 결심하지는 마십시오. 아무쪼록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독립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할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커밍아웃보다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동성애자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 제가 동성애자임을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힘든 건 주위에 저와 같은 동성애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소수로 알고 있는 동성애자 친구와의 관계도 그냥 일반 친구와 같지 않고 어색하기만 하네요. 좁은 데서 관계가 부딪히다 보니 원래 이반친구와의 관계들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좀 더 다른 곳에서 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자신이 온전히 이해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은 특히 동성애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으려고만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니까요. 자신이 지지받고, 또 지지할 수 있는 동성애자 모임을 찾거나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동성애자 친구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인터넷 상의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하기도 하고 레즈비언 바를 찾거나 채팅을 하기도 하지요. 많은 동성

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나보려는 시도는 권할만 합니다.

애자들을 만나보려는 시도는 권할만 합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사람인지, 맞는 커뮤니티인지 판단해 보지도 않은 채 무작위로 또 익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웃팅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인간관계의 범위를 넓혀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를 갖게 되다보면 사소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 어디에서든 그런 말다툼이나 틀어짐은 있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자신에게 맞는 커뮤니티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분쟁이 크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똑같은 분위기이거나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티가 있으니 님의 성격, 취미 등과 맞는 커뮤니티인지를 사전에 판단해 보고 활동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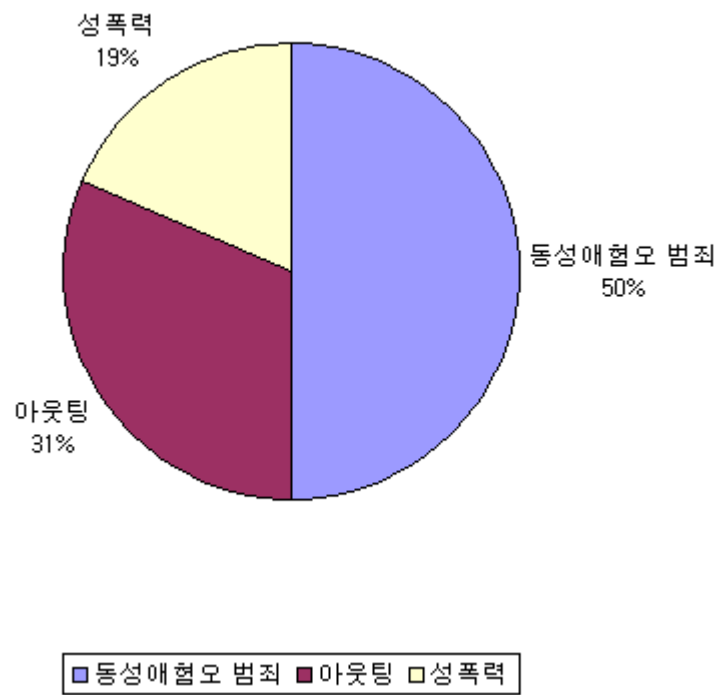
친구에게 커밍아웃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제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오랫동안 같이 지냈고, 서로에게 비밀 같은 건 없는 사이이죠. 서로 아낌없이 대하는 사이이구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제가 이반이라는 사실 하나는 그 동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저의 다른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었지요. 그 친구에게만은 말하고 싶다는 욕구가 자꾸 들면서도, 망설여지는 건 그 친구는 확실한 이성애자인데다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이에요. 커밍아웃을 했다가 그 친구가 절 멀리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까도 생각하다가, 그건 또 그 친구를 속이는 것 같아서 불편하군요.

동성애자에게 있어 커밍아웃한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커밍아웃 하고 싶은 욕구는 매우 높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숨기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지지받게 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여러 사람에게 아웃팅 되어 호모포비아적 언어나 행동에 시달릴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커밍아웃 여부는 온전히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며 누가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커밍아웃 이후 더 진솔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면 정말 다행인 일이지만, 이후에 동성애 혐오 범죄를 겪게 되는 것은 본인이므로 선불리 커밍아웃을 하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커밍아웃 해도 좋을 친구인지 아닌지는님께서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모두가 호모포비아가 있는 것은 아니니 아예 커밍아웃을 포기하지는 마시고 님에 대한 친구분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커밍아웃을 하기로 결정하신다면, 님의 성정체성을 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절대 잊지 마시구요.

**친구분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 폭력범죄 상담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47건의 상담 사례 중 16건(4%)의 폭력 및 범죄에 관한 상담이 접수되었다. 동성애 혐오 범죄 관련 상담 50%, 아웃팅 관련 31%, 성폭력 관련 19%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아웃팅 당했어요.

저와 저의 애인은 학교에서 만나 교제 중입니다. 저희는 서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키스를 했는데, 누군가 저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학교에 저희를 둘러싼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계속 수군거리고, 대놓고 욕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문이 더 퍼지는 것이 두려워서 저희는 일단 학교에서 함께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이 돌고 돌아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을 불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웃팅이라는 것이 레즈비언인 당사자에게 심을 받아 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겪어 다’ 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만큼은 의연한 자세로 대처하려니 그렇게 쉽게 이곳저곳에 자신이 목격하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의연한 척한 바를 알리고, 결국 이런 사태에 이르게 하기’로 대처해 보는 겁니다. 학교 문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 의 경우에는 일단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커밍아웃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체체성 드러나는 일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 부정의 태도를 겪게 되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생각이 복잡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지요? 우선, 부모님에 관해서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증거라는 것을 들이 밀면서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줬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외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평소에 다소 의

심을 받아 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겪어 다’ 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연한 자세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의연한 척하기’로 대처해 보는 겁니다. 학교 문제하는 경우에는 일단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부정을 하기가 쉬워 보이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 부정의 태도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더욱 노골화되고, 피해가 극심해 질 경우, 목격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오해일 뿐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고 싸워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고민과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커밍아웃을 할 계획이 없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회피’의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커밍아웃을 할 계획이 없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회피’의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정체성은 언제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 평소와 철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두어 서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늘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숨긴다고 해도 언제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숨기고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언제든 아웃팅을 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역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커밍아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늘, 숨기고, 부정하고, 회피하는 방법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이 협박하십니다.

저와 애인의 교제 사실을 저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대인의 집에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그 집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애인을 심하게 때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헤어지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지 마침내 제게 유학을 가라고 종용하십니다. 어찌면 좋을까요?

정 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다만 동성을 사랑하는 것뿐인데,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은 정말 큰 거 같습니다. 일단 님이 현재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겪고 계시는 피해가 너무 큰 것이어서 어디서부터 손대어야 할지 막막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기도 많이 힘들겠지만, 님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향이라도 잘 선택해서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부모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든지 하면서 일단 애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입는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조치를 취한 후 유학 등 님의 거취에 관해서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을 부모님께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이란 것이 어렵긴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님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깐요.

유학 등 님의 거취에 관해서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을 부모님께 강조해야 합니다.

커밍아웃한 친구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저에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저의 정체성을 이야기 할까 말까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좀 당황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냥 잘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가 학교에 가 보니 소문이 짝 퍼져 있더군요. 제가 여자를 사킨다고. 그 친구가 다른 사람 몇 명에게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학교를 다니기가 싫습니다. 모두들 저를 별종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어찌해야 하나요.

우선 현재 진행되는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문이 퍼진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만,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성애자에게 있어 아웃팅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웃팅 결과가 얼마나 구체적인 피해들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커밍아웃을 한 그 친한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알려줘야 합니다. 동성애자에게 있어 아웃팅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웃팅 결과가 얼마나 구체적인 피해들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당장은 매우 당황스러워서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소문이 퍼져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입지 않기 위해서는 친구에게 현실을 이해시키고, 함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 스스로 아이들에게 알려진 사실을 수습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함께 수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정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이 참에 일정 정도의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커밍아웃을 할 경우에는, 아웃팅을 위험성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게 되든지 중요한 것은 님이 보다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바심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한다는 것을 보이지 말고, 스스로 의연한 모습으로 사건을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 한다는 것을 보이지 말고, 스스로 의연한 모습으로 사건을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동생이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제가 쓴 일기와 옛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다 읽어보고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어찌 된 일 이냐고 저에게 화를 내십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동성애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하 셨고, 완고한 성격이십니다. 그리고 전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아직 사회인으로서 독립도 하지 못한 상태이구요. 일단 적당한 말로 둘러대긴 했습니다. 한때 그런 거고 지금은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한번 의심하고 나시니 계속 의심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오는 전화 하나하나도 의심하시고 그러십니다. 언젠가 는 터질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지니 어찌 할 바를 모르겠군 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할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부모님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게 되었을 경우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커 밍아웃은 힘들겠지만, 특히 가족, 부모님께 하는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하는 고민이며,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말씀 하신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일도 충분히 고려해봄직한 일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시고, 많은 충격을 받아서 저를 때리거나,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동성애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4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부모님이 저를 온전하게 이해해 주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구타를 하거나 결혼을 강요하거나 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릴 경우, 부모님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지는 당사자인 본인만이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커밍아웃을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모님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예상하는 반응 별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예상하는 반응 별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동성 친구가 성폭력을 가해 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 스스로는 제가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친한 동성 친구가 있지요. 그 친구의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제가 자취하는 와중에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같이 살게 되었지요. 서로 생활하는 데에는 별로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노골적으로 농도 깊은 애무를 해 올 때 저도 모르게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인가 그 친구가 제가 자는데 몰래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나 그 친구나 스킨십을 좋아하고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는 사이라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요. 근데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네요. 노골적으로 농도 깊은 애무를 해 올 때 저도 모르게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깊이 잠든 것처럼 꾸미면서 항상 넘어가거나 잠꼬대처럼 손을 치우거나 하지만 그게 몇 달간 계속 되니깐 정신이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자겠고 그 친구 보기도 두렵습니다. 다음날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는 생활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동성애자인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하고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먼저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동성 간 성폭력은 꼭 동성애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폭력을 행하는/당하는 주체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은 동일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하거나 덜한 건 결코 아니지요.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는 사이’ 라고 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한다면 그건 ‘폭력’입니다. 일단, 친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을 전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모른 채 할 수 없다. 네가 내게 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나는 이런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 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난 후 친구의 반응이 어떨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일단 “나는 원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이후로 노골적으로 포비아를 드러내는군요.

우연한 기회에 동아리 친구에게 커밍아웃 했어요. 커밍아웃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동아리 내 저와 애인 관계를 눈치 채고 넘겨줬었는데 제가 그만 당황하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본의 아니게 애인을 아웃팅시켜 버렸는데 그 후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 친구가 이른바 동성애 혐오자였던 거죠. 그게 뭐냐고 혐오스럽다고 하면서 그만 사귀라니 어찌라니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친구에게 제발 좀 그만하라고 얘기하였지만 그 친구는 제 말을 듣지를 않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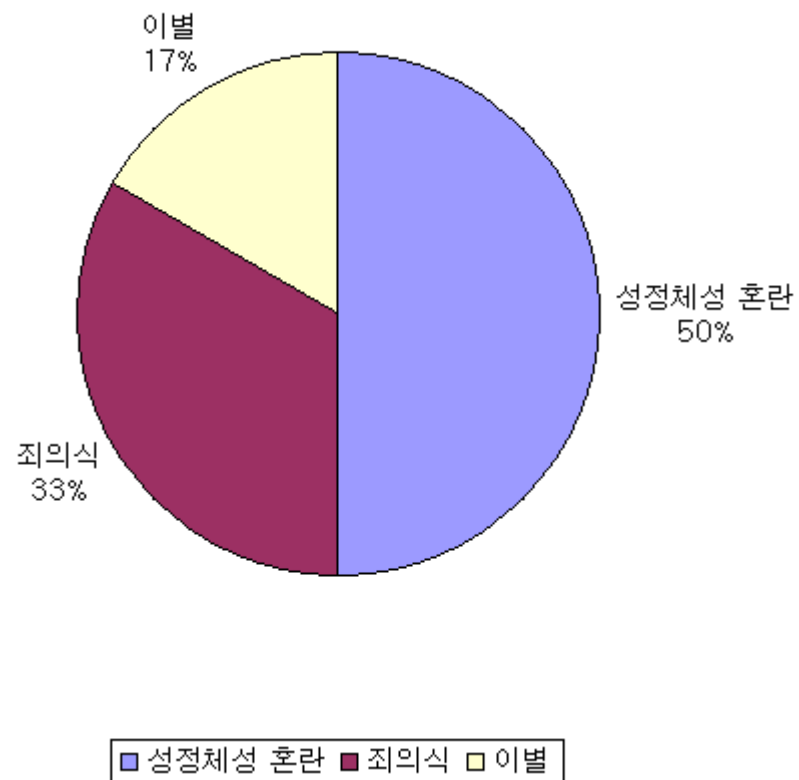
‘어쩌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친구에게 성정체성이 드러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하는 생각에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는 것만큼 신중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선 님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친구로 인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친구로 인한 아웃팅
위험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아웃팅 위험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성애 혐오를 가진 친구라면 동아리 내에서 아웃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 하니까요. 친구가 동아리 내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동성애 혐오를 드러낼 수도 있지요. 우선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친구에게 철저히 다짐을 받아둘 수 있으면,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님과 애인, 그리고 그 친구를 둘러싼 상황을 잘 파악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람들 생각은 그런 친구 다시는 안 보았으면 좋겠다는 게 보통 생각이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쉽게 베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든 계속 같이 보아야 할 상황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 친구를 믿고 커밍아웃을 한 만큼 그 친구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면서 설득한다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면서 설득한다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 기혼여성 상담 통계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47건의 상담 사례 중 기혼여성에 관한 상담은 3%(12건)를 차지했다. 기혼 여성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토로하는 상담이 50%, 동성애적 감정을 경험하거나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죄의식에 관한 상담이 33%로 나타났다. 이 외에 동성 교제 과정에서의 이별 문제에 관한 상담이 17%를 차지했다.

결혼한 여성도 동성애자일 수 있습니까?

저는 마흔 셋의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때 만나 5년 간 교제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별 탈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아이들도 별 문제 없이 잘 커주었고, 남편도 제게 잘해주는 편입니다. 저희 가족을 보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저희 가족의 화목함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얼마 전 일어 공부를 해보겠다는 마음에 일본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A를 알게 되었고, 늘 열심히 준비를 해오고 발표도 열심히 A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 역시 결혼을 한 여성이며, 저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A와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고 시간이 흐르다보니 자연스럽게 A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남성에게 느꼈던 그런 감정을 비슷한 나이의 여성에게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과의 처음 교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입니다. 저는 마흔 셋의 기혼 여성입니다. 제게 일어난 이 폭풍우와도 같은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A는 이런 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동성애자인 것입니까? 결혼한 여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마흔 셋의 기혼 여성입니다. 제게 일어난 이 폭풍우와도 같은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실에 들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상담실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기혼 여성의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 상담의 대부분이 남의 고민과 유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성인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감정을 가지는 것은 결혼한 여성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기혼 여성들의 경우 비혼 여성들에 비해 오랜 시간을 스스로 이성애자라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에 갑작스레 부딪히게 되는 동성의 누군가에 대한 감정에 놀라고 더 큰 두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감정은 어느 공간에서든, 어느 시기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결혼을 한 이성애자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배우자 외의 이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므로 그 관계를 불륜으로 규정하고 지양해야 옳다고 말하지만, 그런 사례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혼 여성에게도, 기혼 남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요. 다만, 그 대상이 동성이라는 점에 있어서 당사자는 더욱 혼란을 느끼고, 고통스러워 집니다. 한편 또 살펴야 할 것은 현재의 감정 상태가 님 자신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이러한 감정이 앞으로 얼마간 더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하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감정 상태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결혼 생활, 가족 관계 등을 고루 살피면서 현재 님이 할 수 있는 선택을 지혜롭게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은 감정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님 스스로

로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으면서까지 사랑을 좇아 갈 수 없는 경우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사랑을 좇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일지는 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감정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감정 상태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물론 이미 현실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님이 처한 문제와 이후의 상황을 긴밀하게 연결 지으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감정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감정 상태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세요.**

저는 가정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한 친구를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느낄 만큼 강렬한 마음으로 불안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친구는 여성입니다. 그 친구도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지만 저희는 깊은 우정이라 생각하면서 각자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친구를 무척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우연한 기회, 우연한 장소에서 만난 한 여성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 여성과 저는 성관계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저도 기혼 상태이고, 아이와 남편을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감당하기 버거웠다고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는 각자의 가정을 지키기로 어렵게 결심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지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또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며 사이좋게 지내던 A씨에게 결혼 전 그 친구에게 느꼈던, 2년 전 그 사람에게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기혼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망각한 저의 감정 때문에 아이들과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성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동성애자 다수가 결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신 스스로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기 때문에 도망치듯 결혼을 하기도 하고, 동성과 교제 경험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 이성을 만나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꾸려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동성교제 과정에서 성정체성이 드러나 가족에 의해 강제적으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번도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생각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 평생을 이성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과 결과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로 살 것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어떠한 계기에 의해 동성의 누군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끼리끼리는 실제 기혼 여성 레즈비언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다양하지만 모두들 매우 고통스러워하시다가 어렵게 전화를 주시곤 합니다. 어떤 사연으로든, 어떤 계기로든 동성의 누군가와 사랑 때문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결혼 상황에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옳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님 스스로 가정에 대한 자신의 기대 그리고 현재 느끼는 그 사람과의 사랑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과 결과는 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에도 잃어버려야 하고, 감수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님은 “가정을 잃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삶,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선택이 무엇일지 숙고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많이 답답한 나날을 보내셨을 텐데, 이렇게 상담실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글을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을 저희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동성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5세의 기혼 여성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제를 했던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저희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도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늘 그 친구에 대한 기억으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 왔는데, 그 친구의 연락을 받고 저는 얼마나 떨리고 흥분이 되던지...그때의 심정을 무엇이라 표현할 길이 없네요. 친구는 결혼을 한 지 3년이 안 되어서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계속 혼자 생활해 왔다고도 했습니다. 몇 차례 식사도 하

고, 아이들 방학이면 친구와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예전에 그러했듯이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이 “너희들, 사귀는 것 같다”며 저희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자기와 함께 떠나자고 합니다. 함께 외국에 나가서 편히 살자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잠자리가 불편해지고,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어떠한 만족도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이를 포기하고 그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오래 전에 교제했던 친구와 결혼 이후에 다시 만나 교제를 하고 계시는군요.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또 다시 동성 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계신 그 상황이 얼마나 버겁고, 고통스러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님의 사연과 같은 사연으로 연락을 주고 계신답니다. 그 동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까. 이미 경험

하신 대로 사람 마음이란 것이
의지대로만 굴러가는 것이 아니
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도 만
들고,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혼자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니 결코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수많은 비혼 여성들이 또 다른 비혼 여성을 사랑하는 문제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고통을 재차 겪어야 하는 것은 이겨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님 혼자만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니 결코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인간은 늘 ‘선택’ 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고들 말합니다. 뒤돌아보면 님이 과거에 동성 친구와 교제를 하게 된

것, 사랑하는 그 친구와 이별을 결심한 것,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려 오신 것 그리고 과거의 교제하던 동성 친구와의 교제를 다시 시작한 것 역시 님의 온전한 ‘선택’ 일 것입니다.

님은 이제 무엇인가를 ‘선택’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시 다다른 것입니다. 님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동성 친구와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또, 님은 가정을 잃음으로 해서 생기는 결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당해 낼 자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돌아온 사랑을 포기함으로 해서 생길 결과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선택이 님을 보다 행복하게, 덜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님을 덜 불행하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이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남편이 아웃팅 협박을 합니다.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단 한번도 제 자신이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걸요. 하지만 저는 어떤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이미 2년째 저와 많은 것을 나누

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이미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놀러 온 그 분과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것을 남편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분의 집에 전화를 걸어 그 분의 남편에게 그 분과 저의 관계를 낱알이 밝히면서 그 분의 남편

남편은 그 분의 직장에도 전화를 걸어 알리겠다고, 직장으로 찾아 가 협박을 해야 그만둘 것이라며 조만간 그 분의 직장에도 찾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게 “아내 관리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분은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그 분의 직장에도 전화를 걸어 알리겠다고, 직장으로 찾아 가 협박을 해야 그만둘 것이라며 조만간 그 분의 직장에도 찾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진심으로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 분 역시 가정은 물론 직장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이 저로 인해 상처받을 일이 매우 두렵습니다.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담실에 들러 고민을 나누어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실제로 기혼 여성들간의 동성애 문제로 남편을 포함한 가족과 직장 동료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아웃팅 등 구체적인 협박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끼리끼리 상담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현재 님은 남

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히 님과 현재 교체하고 있는 분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명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선택하는 몇 가지 사안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우선, 아웃팅 협박 등 남편이 저지르는 사고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 든다면 남편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부인이 레즈비언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을 한다거나, 현장을 목격하여 충격을 받은 남편들의 경우 순순하게 여성의 요구대로 움직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고, 큰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이 저지르는 폭력이 조금이라도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현재의 상황을 풀어 나갈 좋은 방도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격렬하게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남편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다음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님과 현재 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계시는 분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더욱 남편의 불안정한 상태를 함께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격렬하게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남편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다음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님과 현재 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계시는 분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더욱 남편의 불안정한 상태를 함께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지시키면서 남편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른 이유로 이혼을 성사시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혼 사유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노동을 하지 않아 가계를 꾸려 나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거나, 폭언을 일삼는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가해 사례와 가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나 증명할 수 없는 가해 사유 그리고 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의 경우에는 재판이혼의 경우에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합의이혼을 도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면대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칫 정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게 보내야 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재 남편이 가하고 있는 협박과 폭력에 직접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알려진 사례는 없지만, 아웃팅 협박 및 실제적인 아웃팅 그리고 각종 정서적 물리적 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혼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도움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실제 많은 기혼 여성 레즈비언 커플들이 하는 선택은 그야말로 ‘도주’입니다. 기존의 가정과 관계들을 포기하고 해외나 타지역으로 이동해 거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그야말로 ‘정치적 망명’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다만, 아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에 관해 충분히 고민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현재의 상황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안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상처,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상처를 안게 되는 것일 겁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끼리끼리에서 상담소 안내, 신고 절차 안내, 변호사 소개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9년째인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여자가 아닌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만나왔던 남자들도, 지금의 남편도 매우 여성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보면서 “둘이 역할이 바뀐 것 같아”라며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 스스로 ‘여자 몸에 갇힌 남자’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남편과의 성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늘 제가 주도를 하고, 제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남자로 살

**남자로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 저는
여자가 아닌 남자를 사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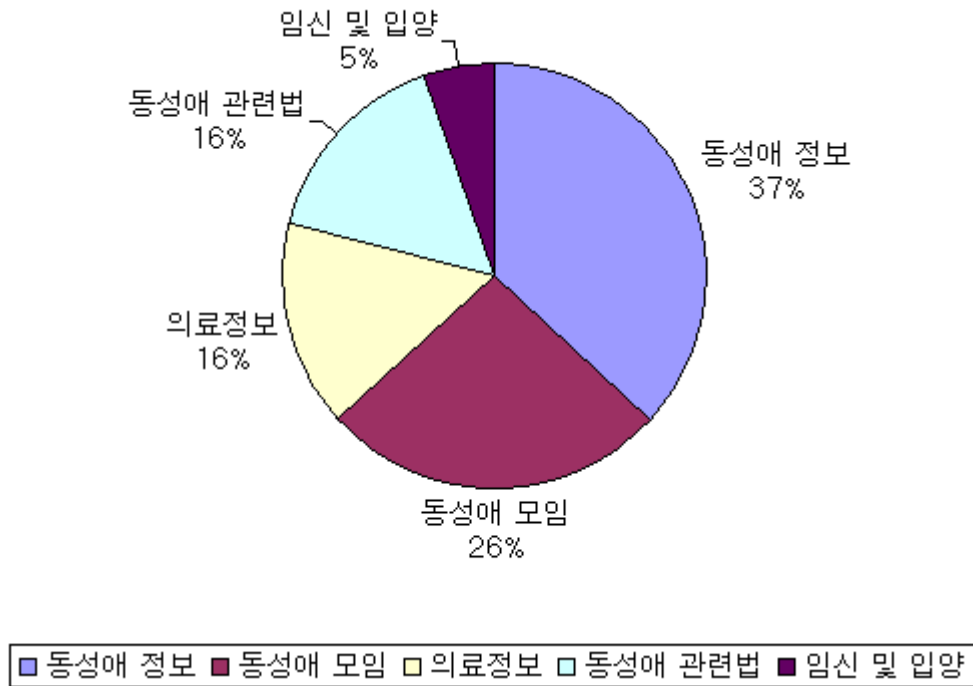
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 저는 여자가 아닌 남자를 사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저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 상태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 성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저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것일까요?

끼리끼리 상담실에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끼리끼리 상담실에는 남과 같은 고민으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적인 성(생물학적인 성)은 여성인데, 스스로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사회적 성이 남성인 분들)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같은 분들을 보통 ‘트랜스 젠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남은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셨으나 스스로 남성으로 생각하고 계시니 엄밀한 의미에서 트랜스 젠더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트랜스 젠더인 분들 중에서 이렇다면, 생물학적인 성이 여성이지만 사회적 성이 남성인 분들이 ‘또 다른 남성(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남성)에게 감정적·심리적·사회적·성적 관심을 갖는 경우에 이를 ’ 동성애자 ‘라고 이름붙입니다. 하리수씨의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하리수씨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체화한 트랜스 젠더인데, 이 분은 남성을 사랑하는 분이기에 이성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하리수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하리수씨는 트랜스 젠더이면서 동시에 동성애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설명은 개인의 상태를 어떤 개념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자하는 억지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나라는 사람은 이런저런 욕구가 있는 것인데, 이를 하나의 개념 안으로 자꾸만 밀어 넣어서 그 개념 안에서만 자신을 설명하도록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은 저희로서는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의 가족, 결혼 생활, 남편과의 관계 문제, 타인과의 관계 문제, 사회생활, 미래설계 등을 폭 넓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개인 차이가 커서 개인마다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하는 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답답하실 때면 언제라도 다시 들려 주십시오.

**현재의 가족, 결혼 생활, 남편과의 관계 문제, 타인과의 관계 문제,
사회생활, 미래설계 등을 폭 넓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동성애 정보 상담 통계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47건의 상담 사례 중 정보에 관한 상담은 4%(19건)를 차지했다. 정보에 관한 상담의 경우, 대부분은 정보를 문의하는 형태로 접수되었다. 정보에 관한 문의로 동성애 관련 일반 정보에 관한 문의 37%, 동성애 모임에 관련한 정보문의 26%, 의료 정보에 대한 문의 16%, 동성애 법안에 정보 문의 16%, 임신 및 입양에 관한 정보 문의 5%가 접수되었다.

팸/부치가 뭐지요?

얼마 전에 처음 이반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저보고 부치라고 하던데... 부치가 뭐예요? 그리고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팸이라고 그러고... 대충 남자같으면 부치라 그러고 여자같으면 팸이라 그러는 것 같은 분위기던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게 뭐지요? 제가 부치라면 저는 남자처럼 해야 하나요?

팸(femme), 부치(butch)는 특정한 유형의 여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사용하는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통 레즈비언 사이에서 팸은 '여성적'인 레즈비언을, 부치는 '남성적'인 레즈비언을 말합니다. 그러나 팸/부치라는 단어와 그에 따른 행동은 이성애 제도를 모방한 것이며 다분히 이성애 중심적인 여성/남성의 성역할을 고정화한다고 보아 팸/부치로 나누는 이분법을 거부하는 레즈비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고정불변의 여성성남성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부치, 팸도 허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여성 동성애자들이 팸/부치라는 이성애적 역할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동성교제 대부분이 은폐되어 왔기 때문에 올바른 역할 모델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겠지요.

여성 동성애자들이 일부 부치/팸이라는 이성애적 역할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동성교제 대부분이 은폐되어 왔기 때문에 올바른 역할 모델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겠지요.

병원을 소개해주세요

제 애인이 처음 관계를 가진 이후에 아파하고 있어요. 갈만한 산부인과를 묻고 싶은데요... 분명히 성관계 그런 거 물어볼텐데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저희가 갈만한 병원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 성간의 성관계로 인한 부인과 질병이라고 해도 진찰시 반드시 성정체성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 진찰만으로 환자의 성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병은 성관계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여성들이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부인과 질병은 방치할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성관계를 하든 안 하든 성인여성이라면 정기적으로 부인과 검진을 받는 편이 좋고요. 정확히 어느 병원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tgnet.co.kr> 산부인과 정보의 후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사람들 중에 이반이 있을 확률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충 사람들이 있으면 몇 퍼센트 정도가 이반일까요? 그 동안 좋아했던 사람들이 일반인 경우가 많아서 괴로웠어요. 그 비율을 대략이라도 알고 싶어요. 내 사랑이 제대로 꽃힐 확률을 가늠이라도 하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끼리끼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상으로 동성애자 혹은 레즈비언의 수와 분포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자신이 동성애자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인 분들도 있고, 레포트나 자료 조사용으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 자체는 성소수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소수자가 전체 인구의 얼마를 차지하는가라는 통계를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상에서 아무리 익명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사회에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것은 큰 두려움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로 정체화 하고 있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정체성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찰과 경험을 통해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시기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는 다분히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수나 분포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으며 이들 간의 결과도 천차만별입니다.

성정체성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찰과 경험을 통해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시기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는 다분히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한 사람과 약 30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거의 50줄에 들어섰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친구에게 다른 사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매일 매일 이 상황이 한스럽고 그저 죽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당장 닥친 문제는 집이라든가 하는 재산의 명의가 다 그 친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일해서 모아서 만들어낸 재산이라 딱 제 것이라고 만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 몫도 분명히 있는 건데요, 다 들고 가버릴 작정이라 정말 괴롭습니다. 어떤 법률상담소에 전화로 대체 이걸 어찌면 좋으냐고 물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대답은 거의 없더군요. 당장에 소송을 내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쪽 사람들이 대체 무슨 관계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지도 막막하고요. 도와주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손에 남은 건 이제 아무 것도 없어요.

정 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은 동성애자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문제 등 여러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률이 전무합니다. 님의 경우 법률상담소에 연락을 했을 때 어떠한 대답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그 곳에 동성애자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성애자에게 법적 권리와 보호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동성애자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문제 등 여러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률이 전무합니다.

게다가 지난 2004년 7월 27일 20년 이상 동성과 실질적인 부관계로 살아 온 여

성이 상대 여성을 대상으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동성애자의 인권을 차별한 반인권적 판결로 동성애자가 법적으로 전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문제에 앞서 소송을 준비할 때에도 변호사와 그 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웃팅에 대한 위험부담도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적인 법률 전문인에 문의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도록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없는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과 관련하여 이 정도의 도움 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저희는 5년째 같이 살고 있는 커플이에요. 서로 무척 아끼고, 물론 가끔씩 싸우기도 하지만 대체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갖고 싶어요. 이제 슬슬 서로 자리도 잡혀가고, 한 2~3년만 있으면 여건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가능하기만 하다면 저희 둘의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입양이나 정자를 사서 낳는거나 하는 방법들 가능한 경로를 알고 싶어요. 꼭 알려주세요, 저희 둘 다 너무 많이 원하는 일이라서요... 부탁드립니다

아 직 국내에서는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동성애자 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에서는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의 문제나 대안가족으로서의 동성애자 가족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지만, 언젠가 국내에서도 동성애자 가족이 법/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 가족의 아이 입양 역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자 구입 등의 방법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레즈비언 커플 중에는 아이 입양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입양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내에 아이를 낳으려는 이반 모임(cafe.daum.net/evanbaby)도 있습니다. 이 모임 활동을 통해서 입양/육아/출산 등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 가족의 아이 입양 역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자 구입 등의 방법도 불가능합니다.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되어 있나요?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다'항과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1항1호를 법적 근거로 하여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물로 판정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러한 판정결과가 바뀌지 않았나요? 궁금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02년 10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끼리끼리>가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여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에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04년 4월 20일, '동성애' 삭제의 내용이 포함 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통과안은 2004년 4월 30일자로 진행 중입니다.

인터넷 모임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잖아요. 근데 제가 모임에 가입하면 분명히 기록에 남을텐데.. 혹시라도 아웃팅 되거나 할 위험은 없을까요? 정말 아웃팅은 절대로! 안되거든요. 여기에 가입해도 저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보안 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정보는 대개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누출되는 편이지만 동성애 커뮤니티 가입을 통한 아웃팅 위험도 실재합니다. 다음(daum.net)의 경우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어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이 덜 한 편이고, 때문에 많은 수의 동성애자 관련 카페가 다음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웃팅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커뮤니티 접속 이후 인터넷 쿠키를 지운다든지 방문 사이트 목록을 지운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동성애 관련 사이트의 접속하지 않는 편이 좋고요.

이반인 친구가 일반인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친하던 여자 친구가 저에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질투가 나 참을 수 없어 고백했다는 친구를 더 이상 장난이라고 생각할 순 없었지요. 구구절절 지나온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는 친구를 보며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솔직하게 널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줬지만, 무너지는 그 애 모습을 보고만 있기도 힘듭니다. 내버려두면 큰 일이 날 것만 같고, 그렇다고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못할 것 같고. 게다가 친구는 자기가 동성애자라서 싫어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구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저도 동성애자가 될 순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 성애자가 이성애자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한 경우 '같은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성정체성을 비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심하게는 자해나 자살을 고민하게 되기도 하므로 주변에서 성정체성에 관한 비하를 하지 않도록 자긍심을 갖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상대의 고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거절한 이유는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다른 분명한 이유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친구분이 걱정되신다면 일단 이전과 같이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도 될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를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게이입니다.

남자친구와 열정적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한 번도 헤어지자는 말없이 2년을 사귀어 왔습니다. 그가 군대에 갔을 때도 내내 기다렸구요, 편지나 면회도 자주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더니 갑작스레 남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은 못할 것이라더니 자신이 게이라고 밝히더군요. 헤어지고 싶으면 솔직한 이유를 대라고 다그쳤더니 몇 년 전 헤어진 남자 선배에게 내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저랑 사귀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지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스킨쉽이 다른 커플에 비해 적었고, 밤에 데이트하는 것을 슬슬 피했

던 것 같아요. 자취 방엔 남자와 다정히 찍은 사진도 본 적이 있구요. 요새 저는 분노에 시달리며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동성애자라서 혐오스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끔찍한 것이죠.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해 온 시간들이 저에겐 고스란히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함 께 한 시간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이 겪은 경험처럼 실제로 적지 않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해보고자 이성을 사귀어 보려는 시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 '시도'가 정말 사랑하는 감정을 수반하게 된다면 문제될 일이 없겠지만 오히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더욱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성정체성과 관련해 겪는 고통도 문제이지만 이런 경우 사귀던 이성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니까요. 사전에 이런 고려를 하지 않은 지난 남자친구 분의 행동이 본인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성커플과의 실연으로 인한 성정체성에 대한 괴로움 때문이었지 '이용'하려거나 '장난'이었거나 하는 악의적인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비정상 취급 받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어떻게 해서든 부정해보고 싶고, 이성과의 교제가 그걸 가능하게 해 줄 거라고 쉽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어요.

이반인 동생에게 한 심한 말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레즈비언인 동생에게 '더럽다'고 심한 말을 말한 적이 있어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동생이 레즈비언이라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저는 저까지 얹히는게 무서워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외롭고 힘들었던 때 저까지 괴롭힌 꼴이 된거니까요. 지금 동생은 레즈비언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둘러대고, 남자친구가 없는 걸 뻔히 알 수 있는데도 남자 친구가 있는 척 하거나 남자랑 소개팅 나간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는 걸 보기 너무 안쓰러워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제발 편해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생이 먼저 말 할 때까지 모르는 척 해야할까요?

가 족에게만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만큼 가족에게만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욕구가 존재합니다. 가장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런 상대에게서 부정당하게 되는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이 없는 상태이고, 동성애자인 동생분을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동생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정말 동생분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동생분 자신이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선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직접적으로 '네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있다'고 님이 단정하듯이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예전에 '더럽다'고 말했던 것이나 동생의 성정체성을 비하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던 것을 사과하고 동성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먼저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언니에 대한 신뢰감이 쌓인다면 정말 동생분이 동성애자일 경우 자연스럽게 커밍아웃을 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친구가 아웃팅을 당했어요.

친구가 학교 안에서 아웃팅을 당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얼마전 친구가 고백한 여자아이가 다 소문을 낸거죠. 요즘엔 아예 교실 밖으로 나오질 않고 밥도 혼자 먹더라구요. 그 애가 너무 안됐고 가슴아프긴 한데, 저도 동성애자로 낙인 찍힐까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어요. 괜히 어설픈 위로로 친구의 마음을 오히려 상하게 할까봐 말을 못걸겠어요. 제 주변에 동성애자라곤 애 하나고, 다른 동성애자들은 본 적도 이야길 나눠 본 적도 없거든요. 이반친구를 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도움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학 생의 경우 학교는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므로 이 곳에서 아웃팅을 당해 고립되는 경우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정도에 따라 자살을 기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왔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까웠던 친구들마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피한다면 더욱 절망감에 빠지게 되겠죠. 님이 그 친구와 가깝게 지내게 될 경우 충분히 동성애자로 오해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두려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혐오감 때문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 때문인 것이라면 솔직한 심정을 친구 분에게 말해주세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당장은 힘들지만 그것은 친구에 대한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새롭게 알게 된 친구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구요. 그리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구요. 동성애자인 친구라고 해서 다르게 대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대해주는 것이 좋은지 먼저 물어봐주고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 친구 분을 배려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위장 결혼을 원합니다.

25세의 남자 이반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올해 33세라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애인 가족들이 게이가 아닐까하고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어서 더욱 결혼을 재촉하나 봅니다. 시달림이 계속되다보면 아무래도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요? 어느날 갑자기 애인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나올까봐 조금 두렵습니다. 본인도 가족들을 속이는 생활이 괴롭겠죠. 어떻게 외국으로 잠깐 나가 살다와서 이 시기만 좀 넘겨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진 않더군요. 생각 끝에 여성 이반과의 위장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결혼 문제는 다만 남자이반만의 문제는 아니니 여성 이반 중에서도 집안에서 혼담애기가 나오고 있는 분과 같이 고민을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답 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 말고도 많은 분들이 여성이반 사이트에 결혼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곤 하시죠. 위장 결혼을 하는 것이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면서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법적으로 공인되는 관계인만큼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장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상대가 단순히 레즈비언이라는 것 외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자신과 성격 등 생활방식이 맞는지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사이트에 글을 올려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다가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이보다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평소에 친분을 쌓아가면서 자신과 맞는지, 신뢰할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님 또한 상대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구요. '위장 결혼'을 할 만한 상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결혼 자체가 필요로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구요, 부모님을 이중으로 속이게 되는 죄책감을 자신이나 파트너가 갖고 있는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실제 사귀고 있는 동성 커플과의 관계가 깨져도 '위장 결혼'한 상대와는 계속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기 전에 자신의 파트너가 이러한 모든 부담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 함께 이야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장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상대가 단순히 레즈비언이라는 것 외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자신과 성격 등 생활방식이 맞는지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딸이 동성애자 모임에 나가고 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제 딸은 고3이 된 여학생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동성애자 모임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었는데 지금은 모임에 나가고 나서 부터 보이는 행동의 변화가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잦은 외박과 술, 담배 그리고 이번엔 무단 가출까지 예전엔 하지 않던 행동을 해 속을 끓이게 합니다. 역지로 남자를 좋아해 보라고 말할 생각도 없고, 그저 우선 자신을 추스리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거짓말로 어떻게든 속이고 싸우는 것으로 무마시키려고만 합니다. 한번은 딸을 이해해 보려고 이반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솔직히 실망스럽더군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은 가능한 갖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그 곳의 건전하지 못한 분위기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딸이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반인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그들에게 화가 납니다. 좀 더 건전하게 딸이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건가요? 딸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긴 틀린 걸까요?

자식이 동성애자인 것을 알게 된 부모님들은 대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 무리한 행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식을 때리거나 집에 가두거나 심지어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요.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의 자식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생각입니다. 자녀에 대한 이런 태도는 오히려 자녀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끔 몰아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힘든 삶일 것임이 분명한 동성애자의 삶을 택하려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무척 가슴 아픈 일일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정말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이상해졌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정체성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입니다. 자녀 분이 밤 늦게 들어

오고 이전에 없던 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녀분 자신도 정체체성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체체성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드러내는 것이 극도로 두려울 것이므로 부모님에게 거짓말까지 하게 되구요. 그런 상황을 자녀분 자신도 괴롭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갖지 않으려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자녀분이 대상이고 보면 아무래도 화부터 내게 되고 '정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셨을 수도 있으므로 자녀분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동성애를 혐오하고 있다고 충분히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녀분 자신도 정체체성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자녀분이 올바른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에 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보고 또 자녀분이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는 것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성애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시는 것도 많이 힘드실텐데 자녀분이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은 더욱 괴로운 일일 것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자녀분이 더 극한 선택을 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먼저 이해해주시는 것이 자녀분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어떤 면이 동성애자 같은 것인가요?

전 평범한 일반인데 주위 사람들이 자꾸 절 레즈로 만듭니다. 제 외모가 좀 미소년처럼 남성적이면서도 예쁘장하거든요. 머릿도 컷트고 하는 짓도 좀 털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주위 친구들이 절 친구 아닌 남자친구로 보는 것 같아요. 길을 걸을 땐 남자친구 데리고 다니듯이 팔짱을 끼고 매달리구요, 다니는 학교에서는 후배들이 저에게 편지 같은거 주기도 하구요.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일반이라고 말해도 별로 신경쓰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엔 제가 남자같이 생겨서 그런게 아니라 진짜 제가 동성애적 기질이 있어서 주변 여자애들이 달라붙는 게 아닌가하는 걱정이 들어요. 이대로 가다가 말려서 진짜 동성애자가 되는 건 아닐지. 그렇다고 친구들을 전부 멀리 할 수도 없구요. 어떻게 해야 저의 동성애적인 면을 없앨 수 있을까요?

성 정체성은 자신이 선택하는 문제이므로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자신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거나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동성애자가 되는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성애자가 되지 않도록 없애야 하는 어떤 특정한 요소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친구들은 본인을 '남자'로 생각해서 혹은 '동성애적인 면'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인 본인 자신의 전체적인 면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남자로 착각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게 되면 많이 속상할테니까요. 본인이 불편할 정도로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체 시키시되 그런 친구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고백을 한다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친구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끼리끼리의 전화 상담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irikiri.org)를 통한 사이버 상담(게시판 상담·이메일 상담)과 함께 면접상담·전화상담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면접상담과 전화상담의 경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의 분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기는 하나 긴급한 상담을 요하는 분들의 내담이 주를 이룹니다.

인터넷 상담은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으나 내담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담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주된 상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면접상담과 전화상담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사연과 고통을 진진하게 듣고, 공감하는

작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내담 내용에 따라서는 법률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내에는 성소수자에 관한 법·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한 법률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성정체성 혼란 상담 다수

<끼리끼리> 전화 상담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내담 사례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사이버 상담과 마찬가지로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과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저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말 큰 일난 거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몇 년을 혼자 끙끙 앓다가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정말 무서워 죽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짐작하시다시피, 저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이 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인간적인 관심이 아니라, 애정의 대상으로서의 관심 말씀입니다. 다른 여자들이라면 다 남자들에게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식의 관심이 여자에게만 갑니다. 정말 제 관심이 여자들에게만 가는지 아닌지가 너무 헷갈려서, 아니, 여자에게만 가는 제 감정을 부정하고 싶어서, 처음 그런 걸 깨달은 뒤 지금까지 몇 년째, 제 자신을 관찰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병 아닌가요? 고쳐야 되는 거죠? 저 혼자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여자들 중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립니다. 저는 이런 제 자신이 무서워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고백조차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정말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실제로, <끼리끼리>에 접수되는 각종 내담사례 뿐 아니라 우리 단체에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상당수의 회원들이 회원가입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까지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 활동을 하는 회원들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부끄러워하고, 이성애 관계가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고백을 하고는 합니다. 아예 “나와 같은 정신병자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당연시하는 사회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반들

짧게는 수년에서 수 십년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신을 학대해 온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이해하고, 긍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도교육을 통해, 매스컴을 통해, 사이버를 통해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성소수자에 관한 편견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성소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동성애 혐오증이라는 것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증상이 아닙니다. 동성애 혐오를

당연시하고, 무조건적인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성소수자 역시 자기 스스로 동성애 혐오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동성애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며, 같은 고민을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정체성을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성소수자 자신이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르게 이

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잘못된 것임을 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소수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혈연가족’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가족이 알게 된 후 많은 레즈비언의 경우, 강제결혼을 당한다거나 감금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강제적인 유학을 떠나게 되는 경우 역시 일반적입니다. 온존하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혐오하면서 살아야 했던 성소수자에게 그러한 가족의 존재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생이 동성애자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제 여동생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아니, 사실 평소에 그 아이를 조금 의심하고 있었기에, 우연한 기회에 일기장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좀 들여다 보게 됐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여동생은 동성 친구와 우정 이상의 감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 - 즉, 만나는 아이 - 와 어디서 무얼 했고, 서로 무슨 애길 나눴고, 무슨 약속을 했고, 하는 것들이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유행처럼 동성애를 한다는데, 제 동생의 행동거지도 심상치 않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차, 증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 동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인데, 이상한 것에 빠져서 정신을 그 쪽으로만 다 빼앗길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날까봐 부모님에게는 일단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제가 자기 일기장을 봤다는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잠깐 그러고 말으려니 했지만 일기장을 보니, 제 동생은 지금 고등학생인데, 몇 년 전부터 동성 친구들과 연애했듯 사귀어 온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자라면 어른이 돼서도 동성애자로 남을 거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모두 크리스천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서서 동생을 어떻게든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없을까요.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레즈비언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아이를 가진 학부모입니다. 1년 전 즈음에 제 아이가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녀 2주 만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 아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아이가 아빠한테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집도 나가지 않고, 조용히 학교에 다니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많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저는 아이가 여전히 여자 아이들과 과만 통화를 하고, 가끔 있는 외출을 할때도 여자 아이들만 만나고 있는 것이 웬지 불안합니다. 아이와 대화를 하면 아이는 “이젠 동성애자 안하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이를 한번 데리고 방문해도 좋을까요? 아이와 면담을 하셔서 아이가 정말 레즈비언이 아닌지 테스트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가족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는 일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인 자신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평생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이해를 기대하는 일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아

누군가가 동성애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가족 중에는 동성애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행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족을 의심하고, 의심하던 가족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 후에는 치료의 대상으로

성소수자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혈연가족 가족 중 동성애자가 있음을 상상할 수 있어야

서 보이지 않을 뿐인 동성애자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두들 너무나도 평범한 시민이어서, 그런 평범한 시민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니 우리 주변에는 동성애자라고는 단 한명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계 처리가 불가능할 만큼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한 이들이 많으며, 당연히 우리 가족 중

간주하고 정신과 치료·상담을 적극 권합니다. 이는 어렵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하고 살아가는 동성애자를 다시 한번 죽이는 처사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딸이, 나의 아들이, 나의 아버지가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동성애자일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혼여성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여느 기혼자들처럼 동네에 사는 제 또래의 아줌마들과 일상적으로 장도 같이 보고, 아이들 교육 얘기도 나누고 하며,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아줌마들 중 한 명과 좀 남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일년 전쯤부터 였는데, 그 사람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제게 몸매가 예쁘다, 얼굴이 예쁘다, 하는 말들을 하기도 했고, 자기는 남편에게 너무 불만이 많고 원래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여자에게 한번도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 저 역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워낙 속 이야기 등을 많이 나누기도 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높은 관계라고 믿었고요. 그리고서 우리는 낮 시간에 집이 빌 때 성관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자면, 남편이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걸 그 사람은 만족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이후로 우리 둘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성관계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섭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싫은 건 아

아니지만, 제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는 이제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도 설명을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제 말을 귀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만족시켜 주는 게 좋았지만 이런 식의 강압적인 성관계는 너무 싫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자길 안 만나주면 우리의 관계를 동네에 떠돌고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람이 그럴만한 사람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는게, 그 사람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또 만날 것만 같아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 질투가 나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람을 피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가정을 꼭 지키고 싶고, 이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고, 제 맘이 대체 뭘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도 사랑합니다. 아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헤어지고자 해도 이 사람이 컷전으로도 제 말을 안 듣는 걸 둘째치고서라도 저 역시 정말로는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 아내가 레즈비언입니다.

저는 기혼 남성입니다. 제 아내와는 8년 전 같은 대학에서 만나 2년여의 교제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생활 6년째입니다. 제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1년 전부터 아내가 외출이 잦아지고, 집에 돌아와 말수가 줄고...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도 5년이 넘어가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별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의 모습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에 저는 아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내로부터 제가 아닌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여자를 사랑하게 될 줄은 자신도 몰랐다면 통곡을 하지만 저는 지금 제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현재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합의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법률적인 조언을 해야 하는 내담입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무하고, 법률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야 합니다.

남자 선배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스스로 레즈비언이라고 정체화한 지는 4년쯤 되었습니다. 현재 사귀는 애인이 있습니다. 애인은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 전, 애인이 저희 학교에 자주 놀러오고 제가 재학 중인 같은 과 친구들이나 선배들하고도 인사도 나누고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제가 레즈비언이라거나 제 애인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저와 애인의 관계를 의심하던 같은 학과 남자 선배가 저희들의 관계를 캐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선배는 어느 날 학생수첩을 제게 내밀면서 “이 수첩에 나와 있는 너희 집 전화로 네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강간했습니다. 저는 현재 1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그 남자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간을 당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선배가 시킬 아웃팅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웃팅 협박을 하면서 제게 돈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 친목모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정모를 나갔는데 누군가 제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 주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 역시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교제를 한지는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저에게 몇 십만원씩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제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는 하지만 도움이 되는 한 돕자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으로도 모자란지 제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고, 저의 신용카드를 수십만원 아니, 수백만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의 용도로 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너희 집에 너가 레즈비언인 사실을 내가 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냐?” 면서 빌려간 돈과 저의 신용카드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으로부터 십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지지 두 달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보니 그 사람은 상습적으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 유사한 일을 겪은 이들이 있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사람이 레즈비언 바(bar)나 친목모임을 통해 그러한 나쁜 짓을 반복해서 하고 다니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많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작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귀던 애인이 저를 스토킹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교제를 해오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은 제게 너무나도 친절하였고, 세상에 저만 있는 듯 그렇게 제게 헌신을 다해 잘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처음에 열리지 않았던 마음이 한순간 열리고 저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교제를 해왔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래저래 싸움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사랑이 식었나보다’ 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성격차이가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고, 저는 다소 느긋한 편입니다. 서로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너가 없으면 죽을 지도 모른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 고 울면서 애원을 하더니, “바람 피웠느냐?”,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냐?” 면서 욕박을 질렀습니다. 급기야 그 사람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 면서 제가 계속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면 저희 집에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집 앞에까지 와서 “당장 나오라” 고 소리를 질르더군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지, 더 나빠지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끼리끼리>에서는 성폭력 피해·아웃팅 협박 및 아웃팅 피해·스토킹 피해 지원을 위한 법률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폭력과 스토킹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통해 전문 법률 상담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타진해 보았으나 실패를 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몇몇 자문 법률 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을 이유로 법률적인 해결의 시도를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가인권

위원회법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차별방지법안 등의 입법이 준비되고 있는 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사회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극한의 피해자들 역시 기존의 법률을 활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국내 성소수자 관련 인권운동 단체 및 여성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다각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국내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레즈비언 관련 사이트

청소년 상담기관

주요 여성 단체 및 상담기관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 (1) 여성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1994년 11월 27일에 창립한 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이다. 상담사업, 교육사업, 연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URL <http://kirikiri.org>

E-mail kiri9411@chollian.net

Tel (02) 703-3542 Fax (02) 703-3543

■ 반성폭력네트워크



여성이반커뮤니티내 성폭력에 대한 예방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여성이반단체 연대체이다.

URL <http://kirikiri.org/network>

E-mail queer_adviser@yahoo.co.kr

Tel (02) 703-3542 Fax (02) 703-3543

■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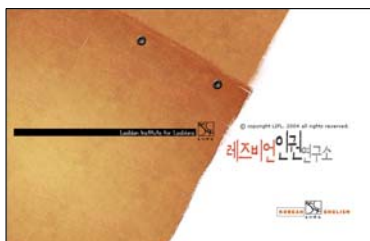
2003년 2월에 창립한 부산지역의 여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이다. 상담사업, 교육사업, 연대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지난 7월에는 제2회 부산무지개영화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URL <http://www.womcenter.org>

E-mail womcenter@hanmail.net

Tel (051) 752-1996 Fax (051) 752-1997

■ 레즈비언인권연구소



레즈비언 권리를 위한 각종 연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3년 11월에 조직된 레즈비언 권리 연구소이다.

URL <http://lesbian.or.kr>

E-mail lifl2003@empal.com

Tel (02) 714-4017

■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직된 한국 최초의 대학 레즈비언 인권운동 모임이다. 2003년에는 최초의 레즈비언인권문화제를 개최했다.

URL <http://flyinggurrl.cyworld.com> E-mail flyinggurrl2001@yahoo.com

Tel (02) 3277-4712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 (2) 남성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1994년 1월에 창립한 남성 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이다. 상담사업, 교육사업, 연대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URL <http://www.chingusai.net>

E-mail chingusai@chingusai.net

Tel (02) 745-7942 Fax (02) 744-7916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 (3) 여·남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 한국동성애자연합



국내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와 개인이 모여 창립한 국내 유일의 동성애자 단체 및 개인 연대체이다.

URL <http://lgbt.or.kr>

E-mail admin@lgbt.or.kr

Tel (02) 703-3542 Fax (02) 703-3543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3년에 창립한 성소수자 단체로서 에이즈예방팀, 미디어감시단, 문화아카데미팀, 출판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URL <http://www.kscrc.org>

E-mail kscrc@kscrc.org

Tel (0505) 896-8080 Fax (0505) 893-8080

■ 동성애자인권연대



시민사회단체 연대, 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연대 등 연대를 기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성애자 인권 단체이다. 상담사업, 정책사업, 건강사업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URL <http://outpridekorea.com>

E-mail lgbtpride@empal.com

Tel (02) 778-9982 Fax (02) 775-9983

■ 청소년이반인권모임 <신세기이반혁명(新世紀異般革命)>

청소년 이반 인권 운동 모임으로 다양한 인권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청소년 이반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URL <http://cafe.daum.net/thesih>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 (4) 대학 여·남 성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연세대학교동성애자모임 <컴투게더>

한국 최초의 대학 동성애자 인권운동 모임인 컴투게더는 타단체와의 각종 연대 사업, 학내 정책 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성애 관련 서적 『커밍아웃』을 번역 출판하기도 했다.

URL <http://queeryonseil.com>

고려대학교동성애자인권모임

<사람과사람>

1995년 가을에 조직된 사람과 사람은 고려대학에 재학 중인 이반들의 인권 및 친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퀴어가이드』라는 비정기적인 간행물을 제작·배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URL <http://www.queerkorea.org>

서울대학교이반모임 <퀴이즈(QIS)>

1995년 5월에 <마음001>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2004년 3월에 <마음005>로 활동해 온 모임이다. 2004년 5월에 <퀴이즈>로 이름을 변경해 활동 중이다.

URL <http://www.snumaum.org>

중앙대학교이반인권운동모임

<레인보우피쉬>

중앙대학교내 이반의 친목과 인권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인 퀴어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URL <http://www.rfpeople.net>

레즈비언 친목 · 활동 정보 사이트

레즈비언 웹진 <또 다른 세상>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에서 운영 중인 레즈비언 웹진.

<http://kirikiri.org/ttose>

해피2반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법인 회사 <딴생각>에서 운영 중인 레즈비언 포털.

<http://www.happy2van.com>

TG-Net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http://tgnet.co.kr>

레즈비언 업소(Bar) 홈페이지

여성전용카페

레스보스(Lesbos)

서울 신촌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바(Bar)이다. 대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인권 활동가 윤김명우씨가 운영하고 있다.

(02) 3142-7873

<http://lesbos.jinbo.net>

여성전용클럽

라브리스(Labris)

서울 홍대 부근에 위치한 레즈비언 바. (02) 333-5276

굿바이 미스터 블랙

서울 신천에 위치한 레즈비언 바. (02) 414-5341

<http://mrblack.co.kr>

아레하

서울 이대역 부근의 레즈비언 바. (02) 717-8116

<http://www.areha.co.kr>

작은영토

서울 신촌의 레즈비언 바. (02) 324-6062

<http://www.drinkoff.wo.to>

이야기

서울 신촌에 위치한 레즈비언 바. (02) 337-8784

<http://home.naver.com/eeeyagi>

을

서울 홍대 부근의 레즈비언 바. (02) 336-2256

<http://my.dreamwiz.com/cafeyu1>

아카시아

대구시 중구 봉산동에 위치한 이반 바 (053) 424-0835

레인보우

부산시 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이반 바. (051) 817-5005

팜므

부산시 진구 전도동에 위치한 이반 바. (051) 816-5967

ZOLOVE71

부산시 남포동에 위치한 이반 바. (051) 248-4855

이프플러스

전주 삼백집 골목에 위치한 이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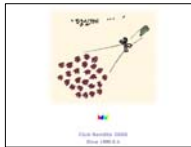
레즈비언 친목 · 활동 정보 사이트

여성이반 사이트 Club Leen (Club Leucine Enkephalin)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로 정기적인 매거진 발행, 여성이반 관련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http://clubleen.com>

클럽 밴디트 2000



20대 중반 이상의 레즈비언을 위한 친목 사이트.

<http://www.bandits2000.net>

여성이반 풍물패 바람소리

여성 이반으로 구성된 한국 유일의 풍물패 바람소리는 퀴어문화제, 3,8 무지개 여성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하고 있다.

<http://www.baramsory.com>

여성 퀴어 공동체 니아가

1997년 7월에 창간된 레즈비언독립 잡지 니아가는 현재 회원제 커뮤니티로 전환 활동 중에 있다.

<http://www.niagga.com>

여성전용소설공간 feelline

여성이반들의 창작 소설 등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http://feelline.net>

청소년 상담기관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2001년부터 서울YMCA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교육 상담 전문기관.

URL <http://aha.ymca.or.kr>

E-mail aha@ymca.or.kr

Tel (02) 2677-9220

Fax (02) 2677-9042

한국청소년상담원

국내·외에서 전문적인 상담훈련과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의 최대 수준의 청소년 상담 기관.

URL <http://www.kyci.or.kr>

Tel (02) 2253-3811

Fax (02) 730-2000

주요 여성 단체 및 상담기관

다름으로삶은여성연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장애여성공감>,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가 함께하는 국내 비주류 여성 단체 연대체이다.

URL <http://dadam.org>

E-mail dadam38@hanmail.net

Tel (02) 441-2392

Fax (02) 441-2328

장애여성공감

1998년 2월 14일에 창립한 단체로, 사회의 주변부에서 장애와 여성을 이유로 분리되어 있는 장애여성의 문제를 알리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

URL www.wde.or.kr

E-mail wde21@hananet.net

Tel (02) 441-2384

Fax (02) 441-2328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2001년9월20일에 조직된 WAW는 일상적 차별과 폭력이 전쟁과 다르지 않고, 그것이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또다시 일상에서의 차별과 폭력들을 강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URL <http://www.kwaw.org>

E-mail wawmail@empal.com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 정책사업, 환경사업, 노동 관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민우회에서 운영 중인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URL <http://www.womenlink.or.kr>

E-mail minwoo@womenlink.or.kr

Tel (02) 737-5763 (사무전화)

Tel (02) 739-1366~7 (상담전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전국 27개 지부를 둔 여성운동단체이며, 각 지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URL <http://www.hotline.or.kr>
E-mail webmaster@hotline.or.kr
Tel (02) 2269-2962 (사무전화)
Tel (02) 2263-6464 (상담전화)
Fax (02) 2269-1823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 지원 사업, 교육사업, 미디어 사업, 연구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전문 상담소이다.

URL <http://www.sisters.or.kr>
E-mail ksvrc@korea.com
Tel (02) 338-2890/2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국외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및 사이트

레즈비언 단체 및 사이트

트랜스젠더 사이트

청소년 성소수자 사이트

아시아 성소수자 사이트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 IGLHRC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IGLHRC은 국제적인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여 교육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제3세계와의 연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Felipa de Souza Awards라는 이름으로 인권 차별에 맞서 노력한 개인 혹은 단체를 위한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가 이 상을 받기도 했다.

URL <http://www.iglhrc.org>

■ NGLTF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 젠더 등 성 소수자의 시민권 보장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URL <http://www.thetaskforce.org>

■ Harvey Milk Institute

HMI는 동성애자 인권운동 기관으로, 미국 최초의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시정감시원이자 2978년 암살당한 하비 밀크를 기리며 만들어진 단체.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학교인 하비 밀크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워크샵이나 퍼레이드를 벌이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URL <http://www.harveymilk.org>

상담기관

Gay and Lesbian Switchboard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성애 전문 상담 기관.

<http://home.vicnet.net.au/~glswitch/>

Tel 1800.184.527 (Country Victoria)

Database of Gay-friendl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http://www.wrnetwork.net/gay-friendly.htm>

미국 내 친동성애적인 각종 치료사들을 소개해놓고 있다. 지역별로 링크 되어 있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 주변의 치료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끔 한다.

Coalition for Positive Sexuality (긍정적인 성을 위한 연합)

<http://www.positive.org>

이 단체는 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일과 성 관련 상담업무를 한다. 동성애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 PFLAG (Parents, Families and Friends of Lesbians and Gays)



레즈비언 혹은 게이의 부모,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연대인 PFLAG는 20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 Washington, DC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등에도 따로 지부를 가지고 있다.

URL <http://www.pflag.org>

■ Love Makes a Family



다양가족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는 곳. 특히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 젠더 가족들의 친동성애적인 주거환경 조성 and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URL <http://www.lovemakesafamily.org>

■ Family Pride Coalition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부모들의 연합.

URL <http://www.familypride.org>

■ FAA GLOBE

성 소수자의 직장 내 차별에 맞서서 설립된 단체. 직장 동료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성 소수자 차별, 호모포비아에 대한 교육사업을 벌인다.

URL <http://www.faa-globe.org>

■ GLAAD (Gay and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

TV 등의 미디어에서 호모포비아에 기반한 농담, 이벤트 등을 통한 명예훼손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URL <http://www.glaad.org>

■ HRC (Human Right Campaign)

미국의 Washington, DC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단체는 성 소수자의 평등한 권리 획득을 위해 설립된 곳. 주로 동성애 인권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투쟁을 벌이며, 특히 사이트에서는 각 주의 동성애 관련 법조항과 동성애 인권운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URL <http://www.hrc.org>

■ The ALSO Foundation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성애 인권운동 단체.

URL <http://www.also.org.au>

Queer America

(<http://www.queewamerica.com>)

미국의 동성애 커뮤니티 및 정보 검색 사이트로, 지역 번호를 적으면 그 지역의 동성애 커뮤니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Lesbian.org (<http://www.lesbian.org>)

레즈비언 관련 사이트들을 정치와 활동, 문화 등 여러 범주로 나누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Isle of Lesbos (<http://www.sappho.com>)

레즈비언을 위한 문학과 예술의 공간.

Wild Heart

(<http://www.wildheartsranch.com>)

레즈비언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곳. 레즈비언 활동가들의 음악, 미술 등의 예술 창작물을 접할 수 있다.

Sisterspace (<http://www.sisterspace.org>)

레즈비언 친목 커뮤니티.

GirlDates (<http://www.girldates.com>)

레즈비언 사이버 미팅 공간.

SHOP4LESBIAN.COM

<https://shop4lesbian.com>

레즈비언 전용 인터넷 숍.

SHOE (<http://www.shoe.org>)

채팅 공간과 인터넷 쇼핑 공간 등을 마련해 놓고 있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영어, 독일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접속할 수 있다.

Curve Magazine (<http://www.curvemag.com>)

레즈비언 매거진 중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curve의 홈페이지.

레즈비언 단체 및 사이트

icWOW (international center
womyn for womyn)



웹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아시아 LBTQ(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리고 퀴어)를 위한 정보 소통 연대체. 2003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 레즈비언 인권활동가 포럼을 주최하기도 했다.

URL <http://wow.jinbo.net>

ASTRAEA (The Astraea Lesbian Foundation For Justice)

1977년 레즈비언의 독자적인 움직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재단. 레즈비언 인권운동과 커뮤니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레즈비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고양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URL <http://www.astraea.org>

NCLR (National Center for Lesbian Rights)

NCLR은 레즈비언과 그들의 가족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언과 상담, 공적 교육 등을 지원한다.

URL <http://www.nclrights.org>

청소년



HMI (Hetrick-Martin Institute)

하비 밀크 고등학교. 하비 밀크 고등학교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학교로, 12세-21세의 성 소수자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 소수자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에 맞선다. URL <http://www.hmi.org>

GLSEN

동성애, 이성애 교육 연대. 미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다.

URL <http://www.glsen.org>

NYAC (The National Youth Advocacy Coalition)

NYAC는 성 소수자 청소년들이 겪는 동성애 혐오범죄에 대항하며,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 매년 봄 Washington, DC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에이즈 예방 및 방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URL <http://www.nyacyouth.org/nyac/about.html>

Minnesota Gay/Lesbian/Bisexual/Transgender Educational Fund

성 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장학제도를 소개해 놓고 있는 곳.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주(州)별 장학제도를 알아볼 수 있다. 장학제도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인턴쉽제도도 소개하며, 성 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장학금 제도도 소개하고 있다. URL <http://www.scc.net/~t-bonham/EDLINKS.HTM>

청소년



Mogenic

게이, 레즈비언 청소년들이 연대하고 있는 온라인 모임 중 최대 규모의 사이트.

URL <http://www.mogenic.com>

SSYGLB (soc.support.youth.gay-lesbian-bi)

성 소수자 청소년들이 뉴스 기사, 성 소수자와 관련한 방대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 성 소수자와 관련한 사이트, 지역별 기관, 책과 자료 등을 소개한다.

URL <http://www.ssyglb.org>

outProud Be Yourself

청소년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스 젠더를 위한 사이트들의 아이콘을 달아 쉽게 여러 사이트로 이동,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는 곳.

URL <http://www.outproud.org>

Youth

영국의 성 소수자 청소년 지원센터. 성적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거나, 성 소수자로 자기정체화한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 젠더 등 성 소수자 청소년들이 그들을 표현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URL <http://www.youth.org>

아시아	트랜스젠더
ALP (Audre Lorde Project) 유색인종 동성애자들을 위한 단체. http://www.alpa.org Asian Gay and Lesbian Resources by Utopia 아시아의 각 나라마다 동성애 커뮤니티 역사 및 현황, 동성애 인권운동의 흐름과 인권단체 등을 소개하고 있다 http://www.utopia-asia.com/ South Asian Queer Resources Directory 남아시아의 성 소수자를 위한 영문 사이트. 매거진과 온라인 매장 등을 열어놓고 있다. http://www.trikone.org/ Girlfriends 제3회 아시안 레즈비언 네트워크(ALN)을 준비해준 대만 레즈비언 단체의 웹진. (중국어) http://www.labrys.org/ Pink Ink 태국 이반 잡지. http://www.khsnet.com/pinkink/ GayNet Japan 일본의 동성애자 커뮤니티. (일본어) http://www.gnj.or.jp APICHA (Asian/Pacific Islander Coalition HIV/AIDS) 아시아 및 태평양제도 출신자들을 위한 에이즈 단체 http://www.apicha.org/apicha/main.html Asian and Pacific Islander Wellness Center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HIV 감염자를 위한 단체. http://www.apiwellness.org	Transsexuality 트랜스섹슈얼리티와 관련한 검색기능과 FAQ등이 실려 있다. http://www.transsexual.org NTAC (National Transgender Advocacy Coalition) NTAC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 고양과 트랜스젠더의 시민권 획득을 위해 설립되었다. http://www.ntac.org TLPI (The Transgender Law and Policy Institute) 트랜스젠더의 법적, 정치적 기구. 전문가들과 자원활동가가 함께 법적, 정치적 분야에서 트랜스젠더의 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http://www.transgenderlaw.org Transgender Care 호르몬 요법과 수술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곳. 의학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와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http://www.tgni.com IFG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Gender Education) 성정체성 선택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만들어진 성교육 기관이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Transgender Tapestry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한다. http://www.ifge.org Transgender Forum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최근 뉴스와 경향 등을 알 수 있다. http://www.tgforum.com Transgendered Network International 1992년 만들어져 메일 서비스, 검색 기능, 데이트 공간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http://www.tgni.com/

참고자료

>> 출판자료
영상자료

동성애 단체 소식지	레즈비언
동성애자인권연대 소식지 LGBT paper 동인련 소식지 DYKE가 2003년 1월부터 LGBT PAPER로 이름을 변경하여 발간 중이다. 동인련 사무실로 메일로 주소, 연락처, 이름을 보내면 아웃팅의 위험 없이 우편으로 배송해준다. >> 배포문의 : (02) 778-9982 lgbtpride@empal.com http://outpridekorea.com	"또다른세상" 1,2,3,4,5,6호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기관지. 1999년도 7호를 마지막으로 웹진 토세(ttose, http://kirikiri.org/ttose)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 과월호 구매 및 복사 신청 : 끼리끼리 (02) 703-3542, kiri9411@chollian.net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 동성애에 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여성성소수자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년도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으로 8월 30일~ 9월 27일까지 8번의 강의와 2번의 토론회를 통해 여성 이반들 내부의 호모포비아를 깨고 자긍심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던 프로그램의 자료와 강연후기 모음집이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강 레즈비언으로 살아남기 △제2강 동성간 성폭력과 가정폭력 △제3강 내 안의 호모포비아 깨기 △제4강 그녀의 삶, 우리의 삶 △제5강 커밍아웃 UP! 아웃팅 OUT! △제6강 지역 여성성적소수자 인권 운동가와의 만남 △제7강 '동성교제' 잘하는 법? △제8강 성적소수자 여성의 자산관리, 재테크 △토론1 기독교와 동성애 △토론2 청소년 동성애자의 인권 △강연후기 >> 무료 배포 문의 : 끼리끼리 (02) 703-3542, kiri9411@chollian.net >> 끼리끼리 웹사이트 http://kirikiri.org

레즈비언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사

이해솔 저, 한울아카데미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2000년

80~90년대를 중심으로 각 분야 여성 인권운동의 성과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엮은 출판물에 실린 원고로 한국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생성과 발전과정을 다룬 부분과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의 평가와 발향을 모색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뮤니티 연구에서는 90년대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겪었던 내부 갈등을 비롯하여 게이, 페미니스트 등 외부 연대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이야기한다. 인권운동 부분에서는 90년대 운동의 성과와 어려움,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며 다양한 레즈비언 담론이 한국의 성정치학 지형도를 바꿀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 10년사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저, 진보평론 2004년 여름호.

90년대 한국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주된 이슈를 짚어보고 2000년대 이후 레즈비언 인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원고에 실린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레즈비언 자긍심 갖기 △성소수자 왜곡과 비하에 대한 대응 △동성애 바로알기 교육 △아웃팅과 호모포비아 범죄 △반성폭력운동과 레즈비언 연대 △이성애중심 가족제도에 반기 △청소년 레즈비언 △레즈비언 인권연구소 창설 △국제적 연대 모색 그 외에 △성소수자 단체, 게이 단체와의 연대 △여성운동과 레즈비언 인권운동 △'인권'으로 연대하는 단체들을 다루며 레즈비언 인권단체와 외부 연대의 현실을 다룬다.

동성애 잡지

동성애 전문잡지

<버디 (Buddy)>

한국 최초의 동성애 전문잡지로 동성애자들을 위한갖가지 문화적 요구와 정보, 지식들을 전달하고 흥미거리가 아닌 진실한 동성애 문화의 진면목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창간해인 9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방송, 신문, 대학가 등에 '동성애'를 핫이슈로 떠오르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열악한 재정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월간지에서 계간지로 출간되다가 2003년 12월 종간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이후 온라인 e-buddy를 운영하며 버디만의 차별화되고 심도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으며 과월호 <버디>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를 통해 전화(0505-938-7979), 팩스(0505-893-8080),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www.kscrc.org>

>> e-buddy 웹사이트

<http://www.buddy79.com>

레즈비언

한채윤의 섹스 말하기 :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섹스 가이드 북

한 채윤 저, 해울, 2000년, 223
쪽,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성
안내서'.

레즈비언 선택 (Lesbian Choices)

클로디아 카드 저, 강수영 역,
인간사랑, 2004년, 556쪽



새로운 인간관
계의 방법을 움
직임이 활발한
요즘, 저자(미
국 위스콘신대
교수·철학)는
레즈비언이 되

고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이 단순히
억압과 배제의 경험이거나 생
물학적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새
로운 사회를 꿈꾸는 '적극적 선택'
의 과정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다. 카드 교수는 레즈비언의 정
체성을 가치판단의 문제이자 적
극적 선택의 문제로 이야기한다.
커밍아웃을 통한 레즈비언의 자
기 노출과정을 그리는 중에 레즈
비언이 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레즈비언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그런 선택은 자신의 관심, 에너
지, 자원 등을 특정한 경험에 헌
신하는 것임을 크고 작은 에피소
드와 함께 설명한다.

90년대 한국 레즈비언 담론의 분석과 전 망: '끼리끼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박민선, 啓明大 女性學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97년

하나의 남성성/여성성이라는 고정화된 주체에
기반한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이며 성차별적인
이성애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레즈비언이 구성해 가고 있
는 담론에 대한 이해를 주 목적으로 한다. 참
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연구 방법으로 삼아 <한
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활
동과 레즈비언 8인의 경험을 드러내고, 재구
성을 시도했다.

레즈비언/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서구 레즈비언 이론의 발전과정과 역사적 의의 에 대한 연구

김지혜,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8

서구 페미니즘과 성정치의 구도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체로서의 레즈비언이
정의되고,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레즈비언 페
미니즘을 설명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리고 성정치학 논의들과는 어떻게 접합하고
충돌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시도했다.

한국의 레즈비언 놀이문화 연구

:클럽(Club)과 바(Bar)에서 드러나는 소수 문화적 특징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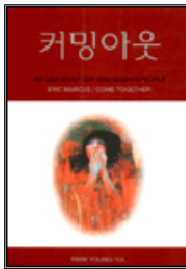
김희연, 한양대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년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적 논의를 빌어 한국의
레즈비언의 놀이문화 속에서 레즈비언들의 생
생한 행위성을 고찰하여 독특한 소수자의 힘을
발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김희연
은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레즈비언 바
(Bar)인 '율'과 '라브리스'를 출입하는 레즈비
언들의 놀이문화를 고찰했다.

가이드 & 개론서

커밍 아웃 (300 Q&A About Gay and Lesbian People)

에릭 마커스 저, 박영률출판사, 2000년, 336쪽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동성애자인 에릭 마커스가 쓴 '동성애자에게 묻게 되는 300가지 질문과 대답'을 연세대학교 동성애자 모임 '컴투게더'가 번역한 책. '동성애자들은 가족 제도를 반대하나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를 발생시키나요?', '동성애자들을 커플 관계를 가지나요?', '왜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법적 결혼을 반대하나요?' 등 일반인들이 갖기 쉬운 동성애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친절히 풀어놓았다.

동성애의 심리학 윤가현 저, 학지사, 1997년, 364쪽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 저자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여자에 대한 남자의 편견,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의 편견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비인간적 행위라고 말한다. 이 책은 각 문화권과 학문 영역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생활양식과 이들이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다루어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하였다.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다니엘 A. 헬미니악 저, 김강일 역, 해울, 2003년, 272쪽



<성서>를 동성애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삼지 않은 최초의 번역서. <성서>에 대한 명쾌한 원문해석과 엄격한 비판을 통해서 <성서>가 노예제, 이단심판, 인종차별, 여성을 차별하는데 이용된 사실을 지적한다. 동성애 역시 이와 같음을 밝히고, <성서>에 씌어진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는 동성애에 대한 그른 판단은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며, <성서>는 실제로 동성애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1994년 초판이 소개된 후 이듬해 이에 대한 반박서 (Straight & Narrow by Thomas E. Schmidt, 1995)가 출간되었을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최안드레아 저, 아미, 1997년, 절판

한 인간의 성적 성향으로서의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정보들을 수록한 책. 동성애자로 현재 미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의 체험과 다양한 자료,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 역사 속의 성적소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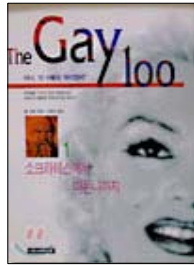
미국의 동성애자 전문 앨리슨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을 번역한 <역사 속의 성적 소수자>는 미국 고교 교사이자 동성애자인 지은이가 동성애자의 역사를 짚은 일종의 학술서.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 관습 등 현대 이전의 동성애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서 시작해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동성애자 학살, 매카시즘 와중에 군에서 쫓겨난 동성애자들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동성애자 전문'을 표방했던 이연출판사의 첫 책이다. 케빈 제닝스 지음, 김길남 옮김, 이연문화, 1999년(절판)

■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성(sexuality)현실을 '성과 정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글모음. "마광수류의 왜곡, 도덕주의자들의 은폐, 이러한 환경의 배경인 무지"에 의해 둘러싸인 성을 본격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있다. 기존의 찬반양론에서 비껴나 쾌락의 사회문화적 의미, 성의 주체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수기 외 지음, 현실문화연구, 1994년.

THE GAY 100 (1) (2)

폴 러셀 저, 이현숙 역, 사회평론, 1996년, 296쪽



책 이름 그대로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자였고,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이 펼쳐진다. 1권에서는 소크라테스, 사포, 오스카 와일드, 칼 하인리히 울릭스, 버지니아 울프, 알렉산더 대왕, 미켈란젤로 보나로티, 레오나르도 다 빈치, 윌리엄 셰익스피어, 에밀리 디킨슨, 앙드레 지드, 마르셀 푸르스트, 미셸 푸코, 앤디 워홀, 루스 베네딕트, 바이런, 테네시 윌리엄 등을 언급하고 2권에서는 아르튀르 랭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록 허드슨, 알렌 긴스버그, 마를린 디트리히, 프란시스 베이컨, 프레디 머큐리, 마돈나, 미시마 유끼오 등을 다룬다.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서동진 저, 문예마당, 1996년, 절판



96년 출간 당시 학계에서 드물게 성과 정치와 문화를 총괄적인 시각으로 면밀하게 분석했던 책으로 성에 대한 근대적 관념을 억압하는 삼중의 이데올로기인 이성애 중심주의, 성인 중심의 성, 성기 중심의 성의 보편성을 비판한다. 이 3가지의 성만이 보편적이고 나머지의 성들은 모두 병리적 신경증적 변태적 퇴폐적 범죄적이라는 일반의 신념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러한 성 이데올로기의 물질적-정치적 관계를 해명, 성정치학과 급진정치학의 관계까지 언급한다. 2 장에서는 영화와 전시회 등을 매개로 성과 문화의 관계를 탐색한다.

모나리자 신드롬(Das Mona Lisa Syndrom)

- 여성처럼 느끼는 남성, 남성처럼 느끼는 여성

레온 카플란 저, 박영구 역,

자작나무(송학), 2002년, 296쪽



동성애의 원인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를 유전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 책. 더불어 광범위한 의학적 지식과 뇌연구를 바탕으로 동성애자들의 감정과 창조적 사고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여성적 감정을 지닌 남성의 감정과 사고를 '모나리자 신드롬'이라고 칭하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류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획기적이고 독특한 뇌 연구를 토대로 문학, 음악, 미술 등의 분야와 역사상의 저명 인물들의 동성애적 성향과 태도를 설명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뇌가 각기 어떻게 다른지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가니메데스 유괴(Le Rapt de Ganymede)

:도미니크 페르낭데즈가 본 서양의 동성애문화

도미니크 페르낭데즈 저, 김병욱 역,

2004년, 수수꽃다리, 432쪽



일생동안 동성애를 테마로 소설을 써온 프랑스의 중견소설가가 고대에서부터 중세와 근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동성애를 총체적으로 조망한다. 이성애 중심의 성풍속사가 얼마나 편견으로 가득찬 것인지, 동성애를 일종의 정신지체와 같은 것으로 선고한 정신분석학의 오류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신랄하게 비판한다. 1부는 동성애를 궁지로 몰기 위한 권력들, 사회적 편견과 억압에 맞서 투쟁하거나 꺾였던 희생자들에 대한 역사적 탐색이다. 2부는 미술, 음악, 영화, 문학 등의 영역에서 동성애를 표현한 작품이나 동성애자인 작가들의 이야기를 풀어간다.

■ 미국의 동성애 언론인들 : 그 10년 후

2000년 전미동성애언론인연합(The National Lesbian and Gay Journalist Association)과 남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언론대학이 미국 언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적소수자 언론인 3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미국 언론이 추구하는 인권에 대한 관심과 다양성 실현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백병규 옮김, 한국언론재단 <저널리즘 평론 통권13호 (2002. 12)>

고통과 영광 사이에서 - 토마스 만과 동성애

장성현 저, 문학과지성사, 2000년, 238쪽



20세기 독일 문학의 거장 토마스 만의 사후 공개된 일기에는 토마스 만의 강한 동성애적 성향이 낱낱이 고백되어 있다. 그리고 토마스 만은 자신의 문학 작품 속에서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짐작하게 해주는 많은 힌트들을 감춰두었다. 이 책은 토마스 만의 동성애적 성향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규명하고 있다. 또한 왜 토마스 만이 아들 클라우스 만처럼 공공연한 동성애자가 될 수 없었고, 왜 자신의 성적 판타지들을 실제 삶에서는 실현하려고 시도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문학 창작이 이런 점에서 그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고 있다.

호모 Punk 異般 - 레즈비언, 게이, 퀴어 영화비평의 이해

바바라 해머 저, 김경옥·주진숙 역, 큰사람, 1999년



섹슈얼리티의 재현과 정치성의 문제를 가장 명백하게 엿볼 수 있는 레즈비언, 게이, 퀴어 영화 비평의 전개과정과 쟁점들을 살핀 책으로 이성애중심적, 반동성애적 텍스트를 비판하는 동시에 전복적이고 대안적인 독해를 보여준다. 현존 최고의 레즈비언 영화감독 바버라 해머 인터뷰 등을 담고 동성애 영화비평의 탄생 배경,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주진숙 교수 등 페미니즘에 기반을 둔 한국 여성 영화비평가 8명이 3년에 걸쳐 토론하고 번역했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 한인섭 저, 사람생각, 2002년, 280쪽



서울대 두뇌한국21(BK21) 사업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의 한인섭 교수와 양현아 계약교수의 공동 저작. 이 책은 “법률가로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배경으로 동성애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 트랜스젠더의 성별 결정에 대한 법적 접근 등과 함께 풍부한 외국사례를 다루고 있다.

법학 논문

■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의 태도 변화 : 동성애와 성전환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입법례와 판례 및 법률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법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점검하고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사회의 변화에 맞춰 법도 성적 소수자에게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한다는 입장의 논문이다. 김태명 저,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성평등연구 제7집 (2003. 5)>

■ 同性婚 :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입법례 / 金玟中

국내에서도 동성혼법 제정이 요청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동성혼 입법례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법조협회 <法曹 제51권 제10호 통권 제553호 (2002. 10)>

■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 趙在炫

성적지향성이 차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 보장'과 동성애자를 위한 '법적 제도의 형성' 두 가지 측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법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동성애자를 위한 입법은 상호간의 성실이나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인격적인 면이 존중될 수 있어야하고, 공동의 삶의 공간을 위한 재산 계약이나 권리의 승계, 동성애 관계 해소 후의 일정한 재정적 부양과 책임, 상속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저자는 동성애자의 자녀를 인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를 생각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한국헌법학회 <憲法學研究 제8권 제3호 (2002. 10)>

■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同性사이의 「生活同伴者關係」

독일에서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생활동반자법에 의해 동성애자도 파트와 '등록된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혼인법의 효력에 유사한 각종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국내 동성애자 관련법 논의에 참조가 될 것이다. 金玟中, 韓國家族法學會 <家族法研究 제15권 2호 통권 제16호 (2001. 12)>

■ 同性愛者の 權利保護 / 姜達天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존엄성을 침해당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우리 헌법 정신을 토대로 한국의 동성애자 권리 보호와 법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헌법상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논지 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청소년보호법시행령과 동성애 차별의 부당성, 동성애자 권리보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통권 제23호 (2002. 12)>

이반의 초상 (Notes of a Desolate Man)

추 티엔 원 저, 김은정 역, 2001년, 시유시, 타이완



타이완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 추티엔원의 첫 소설로 가부장적인 유교문화권인 타이완에서 게이와 에이즈를 소재로 하면서도 최고권위의 문학상을 휩쓸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뉴욕 타임스, LA타임스는 이 소설을 "1999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소설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거부한 채 성인이 된 소심하고 평범한 타이완 남성 샤오와 어릴 때부터 동성애자인 자신의 내면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는 성격의 소유자 아야오와의 관계를 아야오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 회상 형식으로 보여준다. 둘의 사랑과 차이점을 통해 정체성 수용과 동성애자 인권운동, 에이즈 환자를 위한 투쟁 등을 그려내고 있다.

쉬즈 마인

권소연 저, 2002년, 시와사회, 279쪽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성이길 원하는 여자의 사랑이야기. 유경은 여자친구를 사랑하게 되면서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 공포증)에 시달린다. 자신이 동성애자일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유경을 통해 작가는 이성애만이 옳고 당당한 것인가를 묻는다. 또 다른 주인공 지수는 트랜스젠더. 다른 성(性)을 원해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성을 바꿨다. 그 후 삶의 불안에 직면한 지수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다.

영혼의 시그널 (Signals)

조엘 로스차일드 저, 공경희 역, 한문화, 2000년, 1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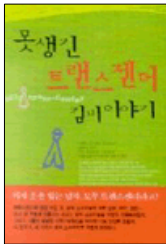


조엘이 에이즈에 걸려 사랑하는 친구 앨버트를 떠나 보낸 고통 속에서, 앨버트의 영혼과 만난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실화이다.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던 두 사람은 누구든 먼저 죽는 사람이 남은 사람에게 신호-영혼의 시그널을 보내자는 약속을 하고 앨버트가 죽은 후 상심한 조엘은 작은 벌새와 함께 나타난 앨버트로부터 영혼의 메시지를 받으며 생의 의지를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두 영혼의 이야기가 주는 감동 외에도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그려내는 미덕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 & 에세이

못생긴 트랜스젠더 김비 이야기

김비 저, 오상, 2001년, 2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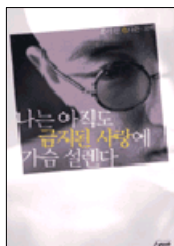


화장도 하지 않고 치마도 입지 않는, 감출 필요도 과장하고픈 욕구도 느끼지 않는 '못생긴 트랜스젠더' 김비의 성장과정과 스스로를 정체화하기 까지의 과정을 그린 이야기. 정신적 성과 육체적 성의 치명적 괴리 속에 김비는 일반적으로 트랜스젠더들이 겪게 되는 과정, 즉 따돌림과 좌절, 유혹, 자괴감을 거쳐 죽음을 생각하기에 이르는 긴 상처의 과정을 극복하고 이제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한 '치료'를 받는 현재까지를 1부에서 설명한다. 책의 2, 3, 4부는 트랜스젠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성적 특기사항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들에 대한 정리, 자신이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을 둘러싼 생리학적 관심들, 트랜스젠더가 택할 수 있는 직업과 사회로부터의 불이익, 가족 혹은 친구, 이웃으로서 트랜스젠더와 함께 살아가기 등 좀 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작가 개인 및 트랜스젠더 정보 홈페이지 <http://www.kimbee.net/>

나는 아직도 금지된 사랑에 가슴 설렌다

홍석천 저, 중앙M&B(랜덤하우스중앙), 2000년, 308쪽



국내 최초로 커밍아웃한 연예인 홍석천의 자적적 에세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가르쳐 준 네덜란드인 토니와의 2년 스토리를 중심으로 중3 시절 불량 학우들에게 성폭행 당한 뼈아픈 기억, 성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갑작스런 신체 이상 증세와 에이즈 공포, 토니의 부모와 함께 지낸 암스테르담의 추억 등을 진솔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참고자료

출판자료

>> 영상자료

더 월 2 (If These Walls Could Talk 2)

감독 : 제인 앤더슨, 마샤 쿨리지, 앤 헤이시

출연 :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마리안 셀즈, 크로 세비
그니, 미첼 윌리엄스, 샤론 스톤, 엘렌 드제너스

기타 : 2000년 / 96분 / 미국 / 국내 비디오 출시



60년대, 70년대, 2000년대 세 시대를 사는 3쌍의 레즈비언 커플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1961년 에피소드는 노년의 레즈비언 커플과 배우자의 죽음을 통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레즈비언의 인생 설계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1972년 에피소드는 페미니즘 운동 속에서 레즈비언들이 소외되고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짝트는 사랑 이야기. 2000년 에피소드에는 정자은행을 통해 아이를 가지려는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Momento Mori)

감독 : 김태용, 민규동

주연 : 김민선, 박예진, 이영진, 공효진

기타 : 1999년 / 98분 / 한국 / 국내 비디오 출시



한 소녀를 좋아했던 소녀의 감성이 여고시절의 교환일기를 매개체로 펼쳐진다. 섬세한 클래식의 선율 속에서 한 소녀의 불안한 성장체성을 따뜻하게 품어내기에 '괴담'보다는 '사랑'의 여운이 더 긴 작품. <열일곱>, <창백하고 푸른 점> 등 여고생들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들을 공동 연출했던 김태용, 민규동 감독은 햇빛에 노출된 은빛 비늘처럼 여고생들의 일상을 반짝반짝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국내 미출시 영상물

디 엘 워드 (The L Word)

로즈 트로세 감독

제니퍼 빌스, 로렐 홀로먼, 미아 커쉬너, 케이트 모이닉, 레이샤 헤일리, 에린 다니엘스, 카리나 롬바드 주연

LA 중산층 레즈비언들의 일상을 스케치한 드라마 시리즈. <고 피쉬 Go Fish>로 데뷔했던 감독 로즈 트로세, 작가 기니비어 터너가 참여했고 케이디 랭의 옛 연인으로도 유명한 그룹 '머머스'의 레이샤 헤일리가 앨리스 역으로 캐스팅됐다. 2004년 1월 18일 파일럿방영과 함께 시리즈가 시작됐다. 7년 커플인 벳과 티나, 스트레이트였으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이웃 제니, 섹스는 하되 연애는 않는 세인, 바이섹슈얼인 앨리스, 커밍아웃을 두려워하는 테니스 선수 데이나, 그들이 노닥거리는 장소인 카페 '더 플래닛'의 주인 마리나를 중심으로 드라마와 코미디가 균형있게 펼쳐진다.

2004년 시즌 1 총 13회 방영, 미국.

국내 미출시 영상물

베터 댄 초콜렛
(Better Than Chocolate)

감독 : 앤 힐러
주연 : 웬디 크로슨,

레즈비언 커플, 주인공의 남동생과 연애를 시작한 양성애자, 레즈비언 서점 주인을 짝사랑하는 트랜스베스타이트 주디, 갑자기 섹스 토이에 몰두하게 된 엄마 등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을 다룬다.

잡다한 조연들이 등장하는 로맨틱 코미디를 바탕으로 깔고 있기에, 정치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노골적이지 않다. 그래서 스킨 헤드 족의 폭력이나 검열 문제, 트랜스베스타이트 주디에 대한 동성애자의 구타와 같은 심각한 이슈는 조금 튀어 보이기도 한다.

1999년, 102분, 캐나다.

이브의 아름다운 키스 (Kissing Jessica Stein)

감독 : 찰스 허먼-웁펠드
주연 : 제니퍼 웨스트펠드, 헤더 예르겐슨
기타 : 2001년 / 96분 / 미국 / 국내 비디오 출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뉴욕의 저널리스트 여성이지만, 아직 배우자를 찾지 못한 여주인공 제시카 스타인이 우연히 만난 헬렌이라는 여자 친구를 통해 동성애에 빠져들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메디물. 사랑과 우정이라는 묘한 감정과 동성애를 함께 다루고 있는 저예산 작품으로 재치 넘치는 대사들은 또 하나의 매력. 2001 LA 필름 페스티벌 관객상, 심사위원특별상(시나리오, 연기), 2002 마이애미 필름 페스티벌 관객상 수상했다.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A Mi Madre Le Gustan Las Mujeres / My Mother Likes Women)

감독 : 다니엘라 페허만, 이네스 파리스
출연 : 레오노르 와틀링, 실비아 아바스칼
기타 : 2002년 / 96분 / 스페인 / 국내 비디오 출시



50이 넘는 엄마의 커밍아웃을 둘러싼 세 자매의 혼란과 변화를 '스페인의 첫 여성감독 팀'으로 주목 받는 두 감독이 유쾌하게 그려낸다. 이성애적 편견 속에서 엄마와 애인을 떼어내기 위한 세 자매의 소동을 코믹하게 그리면서 결국 '엄마의 사랑을 인정하고 각자의 사랑을 찾는다'는 방향으로 마무리 짓는 기분 좋은 영화.

몬스터 (Monster)

감독 : 팻티 젠킨스

주연 : 샤를리즈 테론, 크리스티나 리치

기타 : 2004년 / 111분 / 미국 / 국내 비디오 출시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 6명의 남성을 살해한 미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 에일린 우르노스(Aileen Wuornos)의 실화를 소재로 했다. 13살 때부터 고속도로에서 성매매를 하는 밑바닥 인생 속에서 항상 자살의 기로에 있던 에일린이 셸비와의 사랑에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꿈꾸다가 살인을 하게 되는 과정과 재판까지의 모습을 그린다. 영화는 에일린의 살인을 변호하는 입장이지만 그보다는 에일린과 셸비와의 관계를 묘사하는게 좀 더 많은 비중을 둔다. 몸무게 30파운드를 불려가며 열연한 샤를리즈 테론이 베를린 영화제 여배우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영광을 안았다. 메이저가 아닌 독립영화사 제작.

상실의 시대 (Lost And Delirious)

감독 : 레아 폴

주연 : 파이퍼 페라보, 제시카 파레, 미샤 바튼

기타 : 2001년 / 100분 / 캐나다 / 국내 비디오 출시



개되었고 국내 케이블 TV에서는 <길 잃은 천사들>로 방영되었다.

사립 기숙학교를 배경으로 토리와 폴리의 동성애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그렸다. 동생에게 아웃팅되자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며 남자를 찾는 토리와 토리가 떨어져감을 견디지 못하는 폴리, 둘을 지켜보는 메리가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다. 2001년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를 통해 국내 소개되었고

국내 미출시 영상물

하지만 난 치어리더인걸! (But I'm A Cheerleader)

감독 : 제이미 배비트

주연 : 나타샤 리온

클리어 듀발

부모님에 의해 이성애자가 되기 위한 치료센터에 보내진 10대 레즈비언 미건이 치료센터에서 그레이엄이라는 소녀를 만나고 성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

1999년, 81분, 미국

>> 끼리끼리 대여 문의
(02-703-3542)

국내 미출시 영상물

**관찮아... 그냥 섹스라니까
(Relax... It's Just Sex)**

감독 : P.J. 카스텔라네타

주연 : 미첼 앤더슨,
제니퍼 킬리

게이, 레즈비언 세계를 모두 다루며 [고 피시] 풍의 로맨틱 코미디에서 호모포비아와 에이즈에 대한 심각한 드라마까지 이야기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인 영화. 부치/웜 역할론부터 에이즈 음모설에 이르기까지 게이 사회에서 언급될만한 이슈는 모두 다루고 있기에 90년대 게이 영화를 단 한 편만 봐야 한다면 이 영화를 고르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코믹한 분위기에서 어울리지 않아 톤의 조절에 실패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1998년, 110분, 미국

소년은 울지 않는다 (Boys Don't Cry)

감독 : 킴벌리 피어스 (Kimberly Peirce)

주연 : 힐러리 앤 스웝크(Hilary Ann Swank), 클로이 세비니(Chloe Sevigny)

기타 : 1999년 / 116분 / 미국 / 국내 비디오 출시



남자로 살고 싶었던 한 여성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린 작품으로 1993년 12월 30일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독립영화. 평소 트랜스젠더 수술에 관심있던 티나는 남장을 하고 절도범 경찰수배를 피해 다니다가 캔디와 사랑에 빠진다. 캔디의 남자친구였던 존은 우연히 티나가 여성임을 알고 폭력으로 티나를 대한다. 힐러리 스웝크의 연기가 평론가들의 격찬을 받으며, 제57회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과 제72회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고 피쉬 (GO Fish)

감독 : 로즈 트로체 (Rose Troche)

기타 : 1994년 / 84분 / 미국 / 국내 비디오 출시



키아, 맥스, 일리, 다리아, 이비의 다섯 레즈비언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커밍아웃, 연애, 페미니즘, 섹스 등등의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그려낸다. 90년대 후반 레즈비언 코미디의 유행을 주도했던 영화, 또는 교과서적 레즈비언 영화로 불리기도 한다.

**송지나의 취재파일 세상 속으로
: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레즈비언**

연출 : 유상우 PD, 작가 : 송지나

기타 : SBS 프로덕션 / 1996년 /

비디오 구매(<http://www.sbspro.co.kr>)

연세대 <컴 투게더>, 고려대 <사람과 사람>, 여성동성애자 모임 <끼리끼리> 등 95년, 96년 무렵 우리 사회의 동성애자 모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던 가운데 국내 최초로 레즈비언이 방송을 통해 커밍아웃했던 사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당시 끼리끼리 회장 전해성(가명.29)씨와 모 증권회사에 재직중인 김은하(가명.27)씨와 재미교포 이주현(가명.23)씨도 출연해 각각 자신의 삶을 공개했다. 기획, 연출을 맡은 유상우PD는 당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은 동성애를 음란, 변태, 에이즈 등과 동일시하는 왜곡된 시각대신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동성애에 대한 담론(談論)을 제기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1996년 08월 10일 방영.

국내 미출시 영상물

**물고기와 코끼리
(Fish And Elephant)**

감독 : 리위

중국 최초의 레즈비언 영화로 알려진 작품으로, 실제 레즈비언들과 아마추어 배우들을 캐스팅하여 만들었다. 베이징의 동물원에서 코끼리 사육사로 일하는 독신녀 샤오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사는 젊은 옷가게 사장 샤오링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 내에서의 레즈비언이 부딪치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2001 베니스 국제 영화제와 벤쿠버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2001년, 96분, 중국.

국내 미출시 영상물

**퀴어 애즈 포크
(Queer as Folk)**

주연 : 게일 해롤드,
랜디 해리슨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마을에 사는 게이 친구들의 사랑과 우정,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린 드라마. 영국 '채널 4'에서 방송해 인기를 얻었던 시리즈를 미국 워너 브라더스에서 리메이크했다. 매력적이면서도 야심찬 광고인 브라이언과 그의 연인 저스틴 그리고 브라이언을 짝사랑하는 그의 오랜 친구 마이클의 삼각관계와 레즈비언 커플인 린지와 멜라니의 티격태격 일상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 <The L Word>에 나오는 레즈비언보다 이 작품에 나오는 레즈비언 커플이 더 사실적이라는 평도 있다. 국내에서는 케이블 TV 홈CGV에서 방영한바 있다.

헤드윅 (Hedwig And The Angry Inch)

감독 : 존 카메론 미첼

주연 : 존 카메론 미첼, 알버타 왓슨,

기타 : 2000년 / 90분 / 미국 / 국내 비디오 출시



독일 출신의 한 남성이 미국 록스타의 꿈을 안고 남성에서 헤드윅이라는 여성으로 탈바꿈한 뒤 맞게 되는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록뮤지컬 감성으로 풀어낸 영화로 이미 브로드웨이에서 각광을 받은 록뮤지컬 원작. '21세기형 <록키 호러 픽처쇼>의 탄생'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과 감독상을 휩쓸었다. 영화 간간이 삽입된 독특한 애니메이션과 파워풀한 사운드트랙이 받쳐주는 공감각적 즐거움이 만만치 않다.

모리스(MAURICE)

감독 : 제임스 아이보리

주연 : 제임스 윌비, 휴 그랜트,

기타 : 1987년 / 140분 / 영국 / 국내 비디오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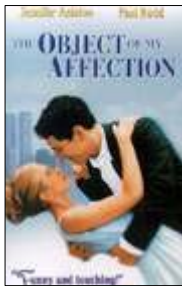
191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E.M 포스터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 동성애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는 영국 귀족사회의 편견 속에서 고뇌하는 모리스의 사랑을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안온하고 부드럽게 보여준다. 작가의 사후에 원작이 발간된 당시에는 동성애를 다룬 작품들 대부분이 죽음과 파국으로 치닫는 결말을 보여주었으나 포스터는 정체성을 긍정하는 낙관적인 결말을 그린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제임스 아이보리의 연출력도 원작에 비해 크게 흠잡을 데 없다는 평을 받았다.

내가 사랑한 사람 (The Object of My Affection)

감독 : 니콜라스 하이트너 (Nicholas Hytner)

출연 : 제니퍼 애니스톤 (Jennifer Aniston),
폴 루드 (Paul Rudd)

기타 : 1998년 / 112분 / 미국 / 국내 비디오 출시



스트레이트 여성 니나와 게이 남성 조지의 동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다.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결혼하고 싶지 않은 니나와 니나의 아이를 통해 자신이 아빠노릇을 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조지의 관계가 대안가족을 고민하는 이반들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감독 : 조나단 드미

주연 : 톰 행크스, 덴젤 워싱턴,

기타 : 1993년 / 125분 / 미국 / 국내 비디오 출시



촉망받던 변호사 앤드류가 에이즈에 감염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후 회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는 영화. 에이즈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억압 속에서도 인권과 사회정의는 개인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취향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강하게 보여준다.

톰 행크스는 이 영화로 93년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93년 베를린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영화의 배경인 필라델피아는 그리스어로 '형제애'를 뜻하며 미국인들은 그 이름에서 자유, 독립, 정의를 연상한다고 알려져있다.

국내 미출시 영상물

하비 밀크의 시대 (The Times of Harvey Milk)

감독 : 로버트 엡스타인 (Robert Epstein)

게이활동가로서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의 시정감시관을 지낸 하비 밀크의 행적을 그가 죽은 이후의 시점에서 재구성하여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 게이운동에 대해 치밀하게 조명하고 있는 작품. 게이들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던 좌파 운동가의 고백으로부터 하비가 살해당한 바로 그 날 조직된 45000명의 촛불시위 장면이 이르기까지 주변 인물의 인터뷰 및 방대한 자료화면을 보여준다. 1984년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 수상작.

1984년, 87분,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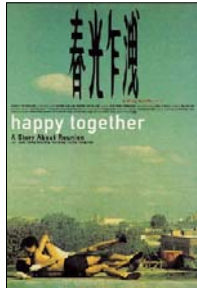
국내 미출시 영상물

급진적 하모니
(Radical Harmonies)
감독 : 디 모스배커

정신과 전문의이며 여성운동단체의 설립자이기도 한 감독 디 모스배커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레즈비언 여성 뮤지션들의 이름과 앨범, 그리고 그들이 참여한 페스티벌, 거기에 영향받은 다음 세대 여성음악가들의 증언을 하나씩 불러내어 레즈비언 여성 뮤지션들의 생명력 넘치는 연대의 역사를 성실하게 기술한다. 로니 길버트, 스위트 허니 인 더 록, 홀리 니어, 맥 크리스티안, 크리스 윌리엄슨, 워싱턴 시스터즈 등 수많은 여성-레즈비언 뮤지션들의 공연장면이 삽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포크, 재즈, 록, 블루스,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음악장르에서 그 활동의 역사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2002년 샌프란시스코 국제레즈비언 게이 영화제 최고 다큐멘터리 관객상을 수상했다. 2002년, 88분, 미국.

해피 투게더 (春光乍洩, Happy Together)

감독 : 왕가위
주연 : 장국영, 양조위
기타 : 1997년 / 97분 / 홍콩



두 남자의 만남과 헤어짐을 왕가위만의 감각적인 스타일로 그려낸 영화. 표류하는 영상과 허무주의에 빠진 파편화된 스타일로 사랑의 쓸쓸함을 담아내는 왕가위의 탁월한 감각이 빛을 발한다. 어느 곳에도 정착할 수 없어 부유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두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황량하고 낯은 듯한 화면 속에 녹여냈다.

크라잉 게임 (The Crying Game)

감독 : 닐 조단
주연 : 포레스트 휘테커, 미란다 리차드슨,
스티븐 레아,
기타 : 1992년 / 112분 / 영국 / 국내 비디오 출시



93년 국내 개봉 당시 충격적인 반전과 Boy George의 주제곡이 많은 이의 입에 오르내렸던 영화. 한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국적, 종족, 피부색깔, 섹스 등등에 대한 마이너리티적인 시선이 엿보인다. 각본을 쓴 닐 조단 감독은 199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다. 그외 1993년 유럽 필름 아카데미에서 올해의 영화 공로상, 1992년 LA 필름 비평가 협회와 1993년 인디펜던트 스피릿에서 외국영화상을 상했으며, 1992년 뉴욕 영화 평론가 서클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다.

결혼피로연 (喜宴: The Wedding Banquet)

감독 : 이안

기타 : 1993년 / 112분 / 대만 / 국내 비디오 출시

게이인 아들과 그의 남자 연인, 그리고 아무 것도 모르는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화해로 이끌어내는 영화로 대만에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다. 중국인, 미국인 게이커플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서양의 문화차이를 볼 수 있기도 하다. 1993년 베를린 국제 영화제 황금곰 상 수상작.



인 앤 아웃 (In & Out)

감독 : 프랭크 오즈

출연 : 케빈 클라인, 조안 쿠삭, 맷 딜런, 데이비 레이놀즈, 윌포드 브림리

기타 : 1997년 / 90분 / 미국 / 국내 비디오 출시

툼 행크스가 영화 <필라델피아>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교시절 선생이 게이였다고 말한데서 소재를 얻어 만들어진 영화.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영화배우로 성장한 제자에 의해 게이로 알려져 버린 남자가 세간의 이목을 끌며 좌충우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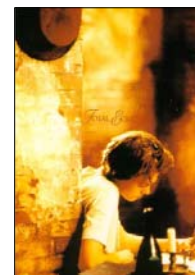
토탈 이클립스 (Total Eclipse)

감독 : 아그네츠카 홀란드

주연 :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데이빗 둘리스

기타 : 1995년 / 111분 / 프랑스

프랑스를 시의 환상 속으로 몰고 가버린 두 천재 시인 폴 베를렌느와 랭보의 예술과 사랑을 그린 영화. 칸에서 이미 연기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데이빗 둘리스의 노련한 연기와 다듬어지지 않은 신성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강렬한 연기의 앙상블 또한 빠질 수 없는 포인트.



버드케이지 (The Birdc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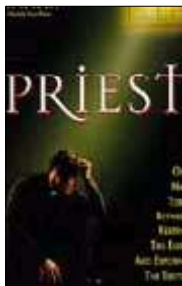
감독 : 마이크 니콜스

주연 : 로빈 윌리엄스, 진 핵크만,

기타 : 1996년 / 117분 / 미국 / 국내 비디오 출시

'게이'의 세계를 소재로 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그린 코메디물. 코믹한 형태로 진행되지만 미국 문화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유명한 배우들의 심도있는 연기와 명감독의 날카로운 사회적 감각을 바탕으로 한 연출로 폭소는 물론 감동을 느끼게 만든 작품이다.

프리스트 (Priest)



감독 : Antonia Bird

주연 : 라이너스 로체, 톰 윌킨슨,

기타 : 1994년 / 105분 / 영국 / 국내 비디오 출시

미국 개봉시 카톨릭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으로, 성직자의 금욕, 신과의 약속에 대한 회의 및 동성애 등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자신의 동성애 관계와 의붓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는 고해성사를 밝히지 못하는 신부의 고뇌를 통해 인간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배급사인 미라맥스(Miramax)는 전국 개봉일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날인 성금요일(4월 14일)로 잡았다가 카톨릭 단체들의 반발로 급히 개봉일을 1주일 후인 21일로 변경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고하토(御法度 Gohatto)



감독 : 오시마 나기사

주연 : 기타노 다케시, 마츠다 류헤이, 다케다 신지

기타 : 1999년 / 100분 / 일본

한 시대의 살기와 광기를 통해 조직과 개인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역사 소설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1923-1996)의 소설 <신선조 시말기(新選組血風録)>에 수록된 작품을 영화화한 시대극으로 "세기말 일본 영화의 마지막 걸작"이라고 일본 평론가들이 극찬했다.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동성애가 존재했으며 심지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무라이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동성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시마 나기사 감독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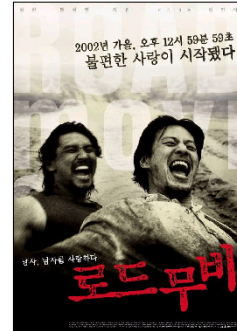
로드 무비 (Road Movie)

감독 : 김인식

주연 : 황정민, 정찬, 서린

기타 : 2002년 / 115분 / 한국 / 국내 비디오 출시

한국 영화에서 동성애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이야기된다. 주가폭락으로 증권사의 유능한 펀드매니저에서 일순간 거리로 나 있게 된 석원과 거리에서 살아가는 동성애자 대식과 대식을 사랑하는 여자 일주의 여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습의 벽을 암울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다루고 있다.



연말 특집극 "슬픈 유혹 1, 2 부"

연출 : 표민수 PD

작가 : 노희경

주연 : 김갑수, 주진모

기타 : 2000년 / KBS 드라마 / 동영상 감상(www.confia.com)

젊음을 회사에 바쳤으나 퇴물 취급 받고 물러나야 하는 50세의 문기와 젊은 엘리트의 자신감 뒤에 동성애자로서의 그늘을 가지고 사는 준영. 퇴진 압력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문기의 고독과 연인을 잃고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외로워하는 준영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한다. 표민수 PD는 "동성애라고 불리우는 고독한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소통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연출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작가 노희경은 이 작품을 준비하는데 2년간의 기획, 2달간의 집필기간, 일곱 번의 대본 수정, 50번이 넘는 퇴고를 거쳤다고 알려져 있다.

끼리끼리 소개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이하 끼리끼리)는 여성성적소수자들의 수평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적소수자 집단을 억압해온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실천적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인권단체입니다.

끼리끼리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제되는 모든 유무형의 제도와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며 특히 성정체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각종의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활동들을 기획합니다. 또한 만연해 있는 강제적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 속에서 고립되고 은폐되어 있는 레즈비언 사회에 건강한 문화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끼리끼리는 성정체성 관련 각종 상담을 이메일, 전화, 게시판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타 단체 활동가들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펼쳐나가고 있는 '동성애 바로 알기' 강의 사업 역시 끼리끼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소모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이반 커뮤니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결성한 '반성폭력 네트워크'(www.kikiri.org/network)의 결함 단체로써 성폭력 문제에 관련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는 아웃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고민을 담은 여러 글들로 이루어진 끼리끼리의 웹진 또다른 세상(www.kirikiri.org/ttose)은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웹진입니다.

간사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오후 7시에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대표 전화는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열어둡니다. 끼리끼리는 이 강고한 이성애 중심주의의 벽을 허물 그 날까지 여성 성적소수자들의 구체적인 억압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는 운동을 해 나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Tel (02) 703-3542	Fax (02) 703-3543	후원계좌: 예금주 끼리끼리
E-mail kiri9411@chollian.net		국민 498101-01-049888,
URL www.kirikiri.org		조흥 333-04-691038,
반성폭력 네트워크 : www.kirikiri.org/network		우리 784-036387-02-101
웹진 또다른 세상 : www.kirikiri.org/ttose		

1994년

11월 끼리끼리 발족 (회원 5명)
12월 끼리끼리 소식지 1호 발간
11월부터 ~ 95. 9월까지: 이대 앞 카페에서 정기적 모임

레즈비언과 페미니스트들과의 만남 주최 - 카페 고마
끼리끼리 3주년 행사
대선후보에게 공개 질의서 (국민회의에서만 답신 음)

1995년

끼리끼리 소식지 2,3,4,5호 발간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동인협) 발족 및 출범
동인협 주최 여름 인권 학교 1회
대만개최 제3회 Asian Lesbian Network 참가
북아현동 사무실 마련
끼리끼리 1주년

1998년

또다른 세상 5호, 6호 발간 편집장 전해성
한국동성애자 단체 협의회 출범 (약칭 한동협 - 대변인 박두성)
동아일보 사진기자가 끼리끼리 회원들을 무단 촬영한 사건
보지 음악다방 공연 - 라브리스
공동데이블 운영위 구성
창전동 새 사무실로 이전
상담팀, 출판팀 구성
한겨레신문 일본만화와 동성애에 관해 항의서한, "구성애의 아우성"에 항의서한
끼리끼리 홈페이지
(<http://user.chollian.net/~kiri9411>)
오픈
출판팀 단행본 <레스보스, 그 섬으로의 여행> 발간
필리핀개최 제4회 ALN 참가 - 김송혜숙, 여라, 웅달샘
레즈비언 송년의 밤 개최 (12월 19일 레스보스) - 끼리끼리, 한우리(인천 레즈비언 모임), 안전지대(부산/경남 레즈비언 모임), 니아까(잡지), 그루터기(30-40대 레즈비언 모임), 레인보우, 우리끼리, 또래끼리(그루터기부터 끼리끼리 소모임) 공동주최

1996년

또다른 세상 창간: 1호, 2호 3호
레즈비언 카페 "레스보스" 마포에 오픈
동인협 1주년 행사
끼리끼리 기금 마련 일일 호프
동인협 주최 여름인권학교 2회
SBS 송지나의 취재 파일: 끼리끼리 회원 출연
전화동아리 153 개설
끼리끼리 2주년
끼리끼리와 레스보스가 연예영화신문을 언론중재위에 고소

1997년

연예영화신문 보도 정정문 게재
또하나의 문화 주최 페미니스트 캠프 참여
끼리끼리 재정마련 일일 호프
또다른 세상 4호
소프트볼 팀 레인보우 창단
해피투게더 공운 심의 항의 시위
동인협 주최 여름인권학교 3회
끼리끼리, 아스트리아(Astraea Foundation, Inc)로부터 500만원 후원금 받음

1999년

끼리끼리 총회, 상근자에서 운영간사체제로 전환
끼리끼리가 문화사업,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레즈비언 전문 출판사 설립 - [도서출판 또다른 세상] 출판사 등록으로 변환

성공회 정의평화연대 서울 회의 참석
끼리끼리, 필리파 드 수자상(Felipa de Souza Award) 수상 (International Gay Lesbian Human Right Commission 김송혜숙, 여신 참가)
또다른 세상 7호
끼리끼리 체육대회
또다른 세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부터 청소년유해도서로 판정
한동협 일주년 기념행사
1999년 레즈비언 활동가 캠프 (부산 한국콘도)
1시민단체 1홈페이지 갖기 운동 지원 단체로 선정
세계 NGO 대회 참가
웹진 ttose 창간 (또다른 세상, 웹진으로 변환)

2000년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모임'에서 '한국여성이반커뮤니티센터'로 위상 전환
2인 간사체제로 전환
1인 간사체제로 전환

2001년

YMCA '동성애' 좌담회참가,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으로 위상 전환
"밝히는 영화" 제 1탄, 2탄, 3탄, 4탄 상영회
3.8 여성의 날 기념 집회 참가
인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시립대학교,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여성노조, 장애여성공감,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성남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림대학교 기독교학생회 SCA 등에서 "동성애 바로알기" 강의
이반여성 운동회 개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합류
게제-여성신문

"여성성적소수자 커뮤니티 안의 성폭력 해결을 위한 1차 토론회" 개최
"인터넷 검열 및 등급제 반대를 위한 퇴폐2등급?!" 파티 개최
제3회 이반청소년 인권학교 참석,
"여성이반 인권캠프 2001 다르게 춤추기"기획
'무지개 2001 퀴어문화제 참석'
여성이반 연합운동회 개최
여성이반사회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강숙자교수의 <레즈비언 여성주의비판> 논문 반박글 게재-여성신문

2002년

한국인권재단 사업지원공모 당선
YMCA 아하 성문화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장애여성공감 등에서 동성애 바로알기 강의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간담회
경향신문사 GOODDAY 1월9일자 1면 '나, 레즈비언. 여자프로농구 용병 4명 총격' 기사에 대한 정정, 사과보도 요청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 토론회 참가
여성이반 반성폭력 네트워크 활동
강철구 성폭력 사건 토론회 준비 위원회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장애인 잡지 '보이스' 봄호 글 기고
장애인 잡지 '함께걸음' 인터뷰
'동인련의 퀴어문화축제 비방을 규탄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퀴어문화 축제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규탄한다!', '끼리끼리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각성을 요구한다!', '동인련은 퀴어 문화축제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
끼리마실 '여름' 개최

'임태훈 동인련 대표를 제시민단체들 앞에 고발합니다' 성명서 발표(한동연(준))
 '임태훈 동인련 대표의 성명에 대한 끼리끼리의 입장' 발표
 '한국동성애자연합 건설을 위한 참여 제안서' 발표
 '임태훈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의 성명에 대한 끼리끼리의 입장' 발표
 반성폭력 네트워크 사이트 개설 (<http://www.kirikiri.org/network/>)
 끼리끼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http://www.kirikiri.org>)
 웹진 '또다른세상' 개편 (<http://www.kirikiri.org/ttose>)

2003년

연합뉴스, 한국여성민우회 노동센터, 여성해방연대 대전지부, 여성해방연대 서울지부, 대구여성회, 계명대학교 성과 사회 특강, 안양여성의전화, 시립대학교 성과 사랑 특강,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사회학 특강, 이대 레즈비언 문화제, 한림대학교, 안동대학교, 시립대학교 여성학 수업 특강, 서울대 관악여모, 경희대 총여학생회주최, 장애여성공감, 이화여대 총학생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아하! 청소년 성문화 센터, 서울대학교 '여성과복지' 수업, KAIST 여성학 소모임, 천주교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동성애 바로알기 강의"**
 아하 성문화센터 '성담담의 실제-동성애'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폭력 강의
 동성애 관련 글 기고 (공간이동, 휘가로 걸,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레즈비언 문화제' 자료집, 인천교대 교지, 이대 이화보이스, 평화와 인권,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 진보생활문예지 『삶이 보이는 창』, 이화여대 대학원신문, 등)

한국동성애자연합 사무국 끼리끼리로 이전
 끼리도 재미있다 4,5,6,7,8 탄 + 9주년 엠티
 아웃팅 방지 캠페인 시작
 반성폭력 네트워크 토론회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청보위 관련 입장서 제출
 한국성폭력상담소 성교육 양성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서 발송
 임태훈 관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해명 요구서 발송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걸림돌' 강숙자 추천
 새 정부에 인권정책 관련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공동)
 임태훈 관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해명 요구서 재발송
 청소년보호위원회 입장 제출 요구서 발송
 3.8 여성의 날 행사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인권활동가대회 3월 포럼 '성소수자의 인권' 발제
 국가인권위원회 청보법 개정 권고 확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치를 환영한다 성명서 발표
 '동성애자 죽이기 나선 국민일보 규탄한다' 성명서 발표
 국민일보는 동성애혐오적 기사와 칼럼에 대해 각성하고 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4월 25일까지 지면에 발표하라 성명서 발표
 이대 레즈비언 문화제 토론회 토론 참가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촉구하는 동성애자들의 입장 (한동연)
 국민일보의 동성애 혐오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구 (한동연)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3 퍼레이드 참가
 성명 발표: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각성하라 (퀴어 퍼레이드 스톤월 항쟁 기념 토론회에 부처)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활동가 워크숍 참가
 부산/대구/서울 여성 이반 활동가 캠프

6 회 청소년 인권 학교
인권교육활동가 워크샵
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아시아 레즈비언 활동가 자문회의 참가
2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참가
다름으로꿰은여성연대 1,2,3,4차 세미나
웹진 또다른 세상 리뉴얼 및 특집 업
데이트
성명 발표: 새 민법개정안의 가족 규
정 삭제를 요구한다
성명 발표: 테러방지법 재추진을 반대
한다
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 프로그램 자료
집 발간
한국여성재단 기금 수락 거부 입장서
발표
장애여성과 여성주의 토론회에서 '레
즈비언 인권운동과 여성주의' 발제
성명 발표: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처

2004년 현재

는 남자친구를 사귄 적도 있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 적도 없는데요. 그 애를 하루도
봐도 불안해요. 그런데 제 이런 감정이 그저 그 친구를 많이 좋아해서 헛갈리는 거
, 아니면 정말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흔 셋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동성애자인 것입니까? 결혼한 여성에게도 이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저의 성향
아 버렸습니다. 동생이 제가 쓴 일기와 옛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다 읽어보고
님께 고자질해버린 모양이에요. 저와 애인의 교제 사실을 저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
니다. 저의 부모님이 애인을 심하게 때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헤어지겠다는
까지 썼습니다. 아웃팅 협박을 하면서 제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너희 집에 너가 레즈비언인 사실을 내가 알리면 어떻게
는 줄 아느냐?”면서 빌려간 돈과 저의 신용카드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배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 나와 있는 너희 집 전화로 네
성애자인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강간했습니다.
현재 1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그 남자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